碩 士 學 位 論 文

라디오放送言語의 誤用實態 分析

: KBS放送言語審議內容 中 라디오프로그램 審議結果 中心으로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濟州大學校 大學院

言 論 弘 報 學 科

尹 喜 吉

2005年 12月

碩 士 學 位 論 文

라디오放送言語의 誤用實態 分析

: KBS放送言語審議內容 中 라디오프로그램 審議結果 中心으로

指導敎授 高 榮 哲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濟州大學校 大學院

言 論 弘 報 學 科

尹 喜 吉

2005年 12月

라디오放送言語의 誤用實態 分析

: KBS放送言語審議內容 중 라디오프로그램 審議結果 中心으로

指導敎授 高 榮 哲

尹 喜 吉

이 論文을 言論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5年 12月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尹喜吉의 言論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

委 員 _____ □□

委 員 _____ □□

濟州大學校 大學院

2005年 12月

목 차

Ⅰ. 서 론 ····· 1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 1
2. 선행연구 검토 ····· 3
3. 연구문제 ····· 7
4. 주요 용어의 조작적 정의 ····· 8

Ⅱ. 이론적 논의 ····· 9
1. 라디오 방송의 기능과 특징 ····· 9
2. 방송언어의 개념과 특성 ····· 12
1) 방송언어의 개념 ····· 12
2) 방송언어의 특성 ····· 12
3. 방송언어문화의 사회적 영향 ····· 16
1) 언어변화의 촉진 ····· 16
2) 의식의 구조화 가속 ····· 16
3) 상징의 정형화 촉진 ····· 17

Ⅲ. 연구방법 ····· 18
1. 분석방법 ····· 18
2. 분석대상 및 분석기간 ····· 18
3. 분석단위와 분석유목의 선정 ····· 21
1) 분석단위 ····· 21
2) 분석기준 ····· 23
(1) 순정성 ····· 24
(2) 공식성 ····· 25
(3) 공손성 ····· 25
(4) 공정성 ····· 27
(5) 세련성 ····· 28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4. 신뢰도 측정 ····· 28

Ⅳ. 연구결과 ····· 30
1. 라디오방송 프로그램에 나타난 방송언어 오용유형 분석결과 ····· 30
2. 라디오방송 채널 특성에 따른 방송언어 오용차이 분석결과 ····· 36
3. 라디오 방송언어의 사용자별 오용차이 분석결과 ····· 38

Ⅴ. 결론 및 제언 ····· 41
1. 연구결과의 요약 ····· 41
2. 올바른 방송언어 사용을 위한 방안 ····· 43
1) 라디오방송 프로그램 제작관행의 개선 ····· 43
2) 방송언어오용에 대한 엄격한 신상필벌의 적용 ····· 44
3) 방송언어 순화를 위한 교육 ····· 45
(1) 라디오방송 프로그램 진행자와 연예인 출연자에 대한 교육 ····· 45
(2) 라디오방송 프로그램 제작자에 대한 교육 ····· 46
(3) 비전문직 출연자에 대한 교육 ····· 47
4) 청취자 감시기능 강화 ····· 47
3. 제한점 및 제언 ····· 48

참고문헌 ····· 50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표 목 차

<표 3-1> 제 1 라디오 분석대상 프로그램 ····· 20
<표 3-2> 제 2 라디오 분석대상 프로그램 ····· 20
<표 3-3> 제 2 FM 분석대상 프로그램 ····· 21
<표 3-4> 순정성과 관련한 세부항목 ····· 24
<표 3-5> 공식성과 관련한 세부항목 ····· 25
<표 3-6> 공손성과 관련한 세부항목 ····· 26
<표 3-7> 공정성과 관련한 세부항목 ····· 27
<표 3-8> 세련성과 관련한 세부항목 ····· 28
<표 3-9> 신뢰도 측정 결과 ····· 29
<표 4-1> 분석기준에 따른 전체 방송언어오용 사례 수 ····· 30
<표 4-2> 분석기준에 따른 방송언어오용 세부유형별 사례 수 ····· 32
<표 4-3> 전체 분석대상에 대한 방송언어 오용 실태 분석 ····· 34
<표 4-4 >라디오방송 채널 특성에 따른 차이 분석 ····· 37
<표 4-5> 방송언어 사용자별 오용차이 분석 ····· 39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국 문 초 록

본 논문은 라디오 방송언어에 대한 고찰로서, 라디오 방송에서 사용되는 방송언어의 오용 실태를 체계적으로 유형화하고 분석해 비판적인 시각에서 검토한 뒤 올바른 방송언어 정착을 위한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현대인들은 텔레비전과 라디오 등 각종 방송 매체에서 매일 쏟아져 나오는 방송언어에 그대로 노출되어 의도했든 그렇지 않든 방송을 통해 언어습관 형성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방송은 국민의 언어교사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 들어 방송사의 각종 오락 프로그램이 비속어나 은어 등을 이용한 말장난이나 자극적인 이야기 거리로 채워지면서 라디오 방송언어가 심하게 오염되고 있고,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의 언어습관 형성에도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본 논문은 방송언어의 현실을 들여다 볼 수 있는 KBS의 “방송언어심의 결과”를 토대로 라디오 방송언어의 오용 유형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분석해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본 논문은 총5장으로 되어 있는데 제2장, 제3장, 제4장까지의 내용을 본론으로 하고 있다. 먼저 제2장에서는 연구의 기본적인 바탕으로 라디오 방송언어와 관련한 이론을 정리하였다. 청각 의존도가 절대적인 라디오 방송의 기능과 특성, 방송언어의 특성과 조건, 방송언어문화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였다.

제3장에서는 라디오방송언어의 오용유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KBS방송언어심의위원회의 “방송언어 심의 결과”(2004년 11월-2005년 5월) 중 라디오방송 프로그램의 심의 내용을 자료로 채택하여 방송언어의 오용 사례 수와 유형을 세부적으로 분류하였다. 그런 다음 임태섭의 분석기준인 순정성, 공식성, 공손성, 공정성, 세련성의 5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국민정서와 관련시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방송언어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순정성에서 가장 많은 오류가 발생하고 있었는데 이는 방송에서 바르고 고운말 사용을 바라는 국민정서에 역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순정성 오류 가운데는 비속어나 은어 등의 저속한 언어 표현이 가장 많았는데 방송언어의 순화노력이 필요함도 알 수 있었다. 또한 라디오 방송채널의 특성에 따른 오용차이 분석에서 방송언어의 오용은 오락성 프로그램과 대중 음악을 중점적으로 편성하는 라디오 채널에

서 주로 발생하고 있었으며, 방송언어 사용자별로는 최근 들어 부쩍 늘어난 연예인 출연자에 의해서 오용 정도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제4장에서는 라디오 방송언어 오용 실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올바른 방송언어 정착을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라디오방송 프로그램제작 관행 중 프로그램 진행자나 출연자 선정과정에 연예인 위주의 기용 관행을 과감히 버려야 한다는 것을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둘째, 라디오방송에서 방송언어를 심하게 잘못 사용하는 진행자나 출연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신상필벌 기준을 적용해 방송출연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강력한 제재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을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셋째, 방송언어 교육을 통한 방송언어 순화방안이다. 방송언어에 대한 교육은 연예인 진행자와 출연자, 제작자, 방송 비전문직 출연자에 따라 그 방법을 달리하여 현실에 적합한 교육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넷째, 바른 방송언어의 정착을 위해서는 청취자의 감시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방송의 수용자인 청취자가 프로그램 진행자나 출연자가 순화되지 않은 저속한 방송언어를 심하게 사용하거나 국민 정서에 반하는 언어를 사용했을 때 시민단체 등과 연계해 해당자를 방송에 출연시키지 못하도록 하거나 인터넷 등을 이용해 방송에서의 퇴출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언어는 정신문화를 창조하는 근본 요소이기 때문에 밝고 건전한 국민정서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바르고 고운 방송언어의 사용은 필수적이며 라디오 방송언어에 문제가 나타나는 대로 해결점을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도 확인할 수 있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Ⅰ. 서 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최근 들어 급격한 사회 변화 현상에 따라 방송환경도 급변하고 있다. KBS, MBC, SBS 등의 공중파와 수많은 케이블 방송 외에도 디지털 위성방송과 인터넷 방송 등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따른 다매체 다체널 시대를 맞고 있고,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은 방송과 뗄 레야 뗄 수 없는 관계를 유지해 가고 있으며 방송의 영향력 또한 날로 커지고 있다.

각종 방송 매체는 방송을 보고 듣는 사람들에게 수많은 정보를 제공하면서 여러 사회 현상을 배우게 하고, 재미를 느끼게 하면서 시·청취자들의 흥미와 관심을 이끌어 낸다. 이러한 방송의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언어인데 현대인들은 바로 방송에서 쏟아져 나오는 수많은 언어를 접하면서 의도했든, 그렇지 않든 방송언어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다. 방송언어는 전파가 닿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전파되기 때문에 방송에서 사용되는 언어가 전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언론매체 중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시·청취자들이 방송을 통하여 언어를 배우는 과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무의식적 학습이고 또 하나는 의식적 학습이다. 무의식적 학습은 시·청취자가 굳이 배우겠다는 목적의식이 없더라도 오랜 시간 같은 언어형태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동안 조건 반사적으로 그 언어형태를 배우게 되는 것이다. 의식적 학습은 '방송언어가 곧 표준어'일 것이라고 믿는 시·청취자들이 방송에서 사용하는 언어형태를 의식적으로 모방하는 과정을 일컫는다. 따라서 시·청취자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방송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모방하기 때문에 방송언어의 사회적 영향력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것이다.(임태섭, 1992, 123쪽)

방송 매체를 통해서 시·청취자의 귀에 들리는 말이 방송언어이다. 그리고 방송 매체가 전달하는 메시지의 기본은 올바른 말이다. 방송에서의 언어표현은 공공성을 지녀야 하며 대중의 의식수준을 고려해야 하고 공익성을 가져야 한다. 여기에서 공공성·공익성은 언어의 순기능을 전제로 해야 하며 사회 문화적 가치 척도에 따라 차별적이어야 한다. 이처럼 공공성과 공익성에 기반을 두어야 하는 방송은 표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방송언어가 전 국민의 일상적 언어습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것은 국민 문화생활 및 개인적인 사회생활과도 밀접할 수밖에 없다고 볼 때 방송 경영진이 추구하는 보다 많은 이윤획득이라는 측면에서의 1차적 가치와 공중에

대한 봉사, 계도라는 측면에서의 2차적 가치추구가 이율배반적 현상으로 끊임없는 평행선을 달리지 않고, 조화성을 찾도록 하는 것이 방송의 책무이다.

그러나 방송기술이 발달하고 방송의 영향력은 높아지고 있는데 반해 방송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방송언어는 과거보다 오히려 나빠지고 있다.

우선 방송언어는 표준어와 표준발음법의 사용으로 국민의 언어교사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속어, 은어, 국적불명의 언어들이 무분별하게 사용되면서 국민들에게 그릇된 언어습관을 심어주는 것은 물론 국민정서 순화에도 역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다매체 다채널 시대에 접어들면서 정식으로 언어교육을 받지 못한 가수, 개그맨, 탤런트 등의 연예인이나 방송 비전문가들이 대거 방송에 투입되면서 방송언어는 급격히 오염되고 있다. 우리나라 방송사의 각종 오락 프로그램이 말장난이나 자극적인 이야기 거리로 채워지면서 소위 인기 연예인 등이 방송에서 사용하는 저질스러운 말이나 인간의 심성을 거칠게 하는 말투 등은 감수성이 예민한 우리의 청소년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연예인들의 언어습관이나 말투, 그들이 만들어내는 유행어를 청소년들이 그대로 답습하면서 청소년들의 올바른 언어습관 형성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밖에도 최근 들어서는 컴퓨터상의 언어, 즉 인터넷 언어가 방송에 등장하면서 언어의 지나친 축약이나 근거 없는 변형으로 인해 세대간 갈등과 대화의 단절은 물론 문법파괴라는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지금까지 방송언어와 관련한 연구에서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한 조사연구는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져 왔고, 그 결과 공중파 텔레비전 방송의 경우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지만 부적절한 방송언어의 사용을 자제하려는 노력들이 서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라디오방송 프로그램에서 나타나는 방송언어의 오용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이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어서 이러한 자정 노력이 라디오방송 프로그램에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고, 따라서 라디오방송은 방송언어 오용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

텔레비전의 등장으로 라디오방송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라디오방송은 방송의 기본이고, 라디오방송의 속보성이나 간편성 등은 아직까지도 텔레비전방송보다 훨씬 앞서고 있다. 특성상 라디오방송은 텔레비전방송에 비해 청각의 존도가 높기 때문에 프로그램 진행자와 출연자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청취자의 기억에 오래 남게되고 반복해서 들을 경우 일상 생활 속에서 습관적으로 표출될 수 있다. 특히 영상과 문자가 뒷받침되는 텔레비전방송과는 달리 라디오방송은 전적으로 많은 양의 언어에 의존해 프로그램 내용을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언어표현에 상당히 신중해야 하고 라디오방송에서 나타나는 방송언어의 오용 문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이고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라디오방송이 청취자의 언어생활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전제 아

래 라디오방송에서 나타나는 방송언어 표현의 오용사례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오늘날 라디오방송에서 나타나는 방송언어 오용의 문제를 도출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먼저 방송언어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검토해 우리나라의 방송 현실과 방송언어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짚어 볼 것이다. 그리고 라디오방송의 기능과 특징, 방송언어의 개념과 특성, 방송언어문화의 사회적 영향 등 라디오방송이나 방송언어와 관련된 이론적 논의를 살펴볼 것이다. 그런 다음 라디오방송의 방송언어 현실을 구체적으로 진단하기 위해 KBS 방송언어심의위원회의 "방송언어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라디오방송에서 나타나는 방송언어 오용사례를 유형별로 분석해 어떤 부분에서 방송언어 오용이 심한가를 알아보고, 이러한 방송언어의 오용이 라디오방송 채널의 특성에 따라서는 어떤 차이가 있으며, 방송언어를 사용하는 주체별로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이러한 실태 분석을 통해서 어떤 유형의 잘못된 방송언어가 어떤 특성의 라디오방송 채널에서 어떤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고, 이런 분석 결과를 토대로 라디오방송에서 올바른 방송언어를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안 마련이 필요한지를 제시하려고 한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2. 선행연구 검토

방송언어와 관련 된 연구는 크게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방송언어의 오용사례와 문제점을 지적한 연구이고, 다른 하나는 방송진행자의 역할을 조명하고 방송진행자의 한 요건으로 언어 사용에 관해 언급한 것이다.

첫째 방송언어의 오용사례와 문제점을 지적한 연구로는 이주행(1995), 임태섭(1996), 이은경(1998), 최윤락(1999), 김대행(2002), 김상준(2003) 등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주행(1995, 297~321쪽)은 방송언어는 특정하지 않은 수많은 수용자의 국어습득과 가치체계 형성에 크게 영향을 끼치는 만큼 방송인 스스로는 방송언어 특성인 정확성, 명료성, 순정성, 간결성, 용이성을 분명히 인식해 올바른 방송용어가 구사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어교육제도의 개선 부분은 방송언어의 오용을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으로 보기에는 미약한 부분이 있다.

임태섭(1996, 157~167쪽)은 외래어 사용과 권위와 극단의 언어를 사용한 예를 조사하여 언어 정책을 위한 제언을 시도하고 있다. 우리나라 방송은 지나치게 외래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고치려고 하는 노력이 전혀 안되고 있

음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올바른 방송언어 사용은 방송에 출연하는 사람들에게만 맡겨서 안되고 제작자, 출연자, 방송사의 공동노력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임태섭(1993, 152~179쪽)은 방송에서 권위주의 언어와 극단적인 표현을 남용하고 있어, 국민들의 언어습관과 사고방식에 여러 가지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사례를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임태섭의 연구는 우리나라 방송언어에서 외래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 분명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또한 임태섭은 방송에서 권위주의 언어와 극단적인 표현을 남용하고 있어, 국민들의 언어습관과 사고방식에 여러 가지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사례를 지적하고 있다. 왕정시대의 의식을 답습하는 언어와 정치인을 귀족화하는 언어, 계층을 차별하는 언어를 남발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보다 모든 면에서 나은 사람으로 인식하게 만들어 사람들을 권위주의적 사고 방식과 체제에 익숙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과장된 표현, 최상급, 강렬한 언어, 극단적 표현 등의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국민의 언어생활에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극단적 언어사용으로 중간어의 상실, 천장효과,[1] 지하실효과[2] 등이 발생하고, 국민들의 사고 방식을 흑백논리로 양극화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국민의 언어생활과 사고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방송에서 권위주의 언어와 극단적 언어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방송이 권위주의적 언어를 버리고 민주주의 사고방식에 기초한 새로운 언어를 개발해야 하며, 방송이 선정성을 강조해 흥미를 유발하려는 태도를 지양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이은경(1998, 41~51쪽)은 방송출연진의 무분별한 외래어 사용실태와 프로그램 제목에서의 외래어 사용현황을 분석했고 특히 외래어 가운데서도 표기와 발음의 혼란 상황을 고찰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일주일간의 방송 프로그램의 제목 중 전체의 63.2%가 제목에 외래어를 포함하고 있으며, 외래어만으로 구성된 경우도 전체의 22.7%나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외래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발음과 표기가 외래어 표기법에 맞지 않아 국민의 언어생활에 혼란을 주고 있음을 고찰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외래어 표기 및 발음의 혼란 부분을 체계 있게 다루지 못하고 단지 프로그램 제목에 외래어가 많이 사용되는 면만을 강조해 외래어 및 외국어의 전반적인 문제는 짚어내지 못하고 있다.

최윤락(1999, 68~70쪽)은 방송인의 언어사용 자질 문제를 비중 있게 다루면서

---

1) 천장효과(Ceiling Effect)란 조금 좋은 일에 극단적으로 좋다는 의미를 가진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화되면, 그 일보다 더 좋은 일이 생겨도 같은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미 좋다는 표현이 천장에 이르렀기 때문에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다는 것이다.

2) 지하실 효과(Basement Effect)란 천장효과와 반대되는 경우를 지칭하는데, 조금 나쁜 것을 극단적으로 나쁘다고 표현함으로써, 정말 나쁜 일이 발생했을 때, 이를 차등화할 표현을 찾지 못하는 현상을 뜻한다.

방송 프로그램에 나타난 언어표현의 방법과 현실을 장르별로 살피고 영국, 미국, 일본 등 외국의 언어 정책과 우리나라의 언어 정책을 비교하고 있다.

김대행(2002, 37~50쪽)은 방송의 언어를 문화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즉 문화가 지닌 의도성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그 의도 속에 포함되어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방송언어의 문제 중에서도 탈 규범, 비속화, 차별화, 조작문제 등을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 특히 방송언어의 비속화로 인해서 일상 생활의 언어에서 공적 개념이 사라지고 교양보다는 자극을 추구하는 언어가 난무하게 된다고 지적하면서 근본적인 대안으로 방송언어에 대한 인식의 개선, 수용자의 각성, 방송제작 능력 향상 등을 들고 있다.

김상준(2003, 19~39쪽)은 방송메시지의 기본인 방송언어가 갈수록 혼란스러운 원인을 살펴보고 한국방송의 음성언어 사용실태와 표준발음과 발성법 등 방송에서의 음성언어 교육방안에 대해 고찰하면서 이에 대한 대안을 폭넓게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상의 연구들은 발음이나, 외래어, 사투리, 비속어에 대한 지적 등 국어 순화 적인 측면만을 강조함으로써 방송언어의 문제를 포괄적으로 고찰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특히 최근에는 청소년들에게 가장 소구하기 쉬운 연예인 관련 프로그램이나 코미디 프로그램이 방송언어의 주요 오염원이 되고 있으며 그 동안에는 인터넷 상에서만 사용되던 통신언어까지 방송언어로 사용되는 추세가 강하다. 이는 우리나라의 방송시장이 다매체, 다채널 시대로 접어들면서 전문적으로 언어훈련을 받지 못한 가수, 개그맨, 탤런트, 스포츠맨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방송에 출연하면서 방송언어가 급격하게 오염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현실에 비춰볼 때 대안제시로는 미흡한 면이 있다.

둘째 방송 진행자와 관련한 기존연구들은 전영우(1986), 팽원순(1986), 강명구(1993), 한신평(1993), 김옥경(1995), 이영현(1996), 이금희(1998), 신상일(2002) 등의 연구를 들 수 있으나 이들 연구의 대부분은 진행자에 대한 정의, 자질, 역할에 따라 분류하여 검토해 보는 것에 치중하고 있다.

먼저 전영우(1986, 19~39쪽)는 아나운서의 자질에 관해 논의했다. 그는, 아나운서의 자질로서 정확한 표준어 구사 능력과 풍부한 교양과 지식 소유, 정확한 언어구사와 묘사력 소유, 건강한 음성이 기본 자질이라고 역설하였다. 또 아나운서의 퍼스낼리티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아나운서의 퍼스낼리티가 방송에서 전부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논문은 구체적인 사례 없이 아나운서의 기본 자질만 논의해 깊은 고찰이 부족하다.

팽원순(1986, 135~145쪽)은 앵커맨을 방송뉴스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은 사회자로 정의하였다. 그는 논문에서 앵커맨의 영향력의 정도를 서술하고 미국의 앵커맨 제

도와 앵커로서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를 들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 초에 들어 30분내지 40분대의 대형 뉴스 프로그램이 시작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뉴스진행자가 방송에 등장했다는 것과 앵커맨으로서 갖춰야할 조건들을 서술하고 있다. 특히 시대가 변해 새로운 포맷의 진행자인 앵커의 퍼스낼리티가 프로그램 시청의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어 공정한 뉴스진행을 위해서는 퍼스낼리티도 중요하지만 앵커가 사회구성원 일상생활의 가치판단과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했을 때 앵커는 저널리스트로서의 충분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외모와 정신적인 모든 면에서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야 하고, 뉴스 전달에 있어서 정확한 발음과 언어를 구사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 논문은 뉴스 진행자인 앵커의 자질과 언어구사 등에 한한 것이어서 방송언어의 오용과 관련해서는 폭넓은 연구가 미흡하다.

강명구(1993, 35~49쪽)는 80년대 중반 이후 우리나라의 텔레비전 뉴스 앵커는 미국식의 중립적이고 권위적 현실규정자라는 모델을 지향하고 있고 뉴스 언어의 현실구성이 자연주의적 표상방식, 이야기 체의 서술구조를 강조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뉴스의 흐름을 관장하는 뉴스 앵커의 언어 사용 능력이 중요하며 사용하는 언어의 속도, 어휘, 얼굴표정 등이 현실을 전달하는 뉴스에 있어서 비중 있는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한신평(1993, 172~185쪽)은 방송진행자의 역할을 방송사 상징, 프로그램 중심선, 수용자와 제작자의 쌍방 대리인에 있다고 규정하고, 방송진행자의 시대별 특성과 현황을 열거하였다. 또 방송 진행자의 선발과 선정 기준에서 언어 구사 능력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며, 언어에 대한 사전 교육이 부족해 부정확한 발음, 부자연스러운 말, 경어의 오용과 과용이 문제가 되는 방송 진행자의 출연은 자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옥경(1995)은 라디오 방송 진행자만을 대상으로 해서 방송진행자의 역할을 프로그램의 상징적 얼굴 역할, 방송사의 대변인, 프로듀서의 대리인 역할, 수용자의 대리인, 수용자의 교육자 등으로 분석하고 방송진행자기 갖춰야 할 자질로 순발력과 방송감각, 정확한 발음과 표준어 구사 능력, 임기응변의 능력, 해박한 지식의 소유자, 유머감각과 재치, 인터뷰 할 수 있는 능력을 들었다. 또한 라디오방송 프로그램 진행자들의 문제점으로 신변잡기 식의 멘트와 대본위주의 구성, 안이하고 불성실한 진행 등을 들고, 고품격의 라디오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전문 방송 진행자들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발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밖에도 진행자의 능력으로서 퍼스낼리티와 스피치 능력, 커뮤니케이션의 본질 이해와 수용자의 친구가 되어야 하며 기본적인 언어 능력이 있어야 하고 언어 교육적인 측면에서 나름대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영현(1996)은 먼저 방송진행자의 특성과 유형을 살피고 방송진행자의 역할을 네 가지, 방송진행자의 조건을 아홉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높은 교육수준 및 건전한

생각과 올바른 가치관을 소유한 사람이 방송 진행자로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 중 언어와 관련해서 방송진행자는 표준어와 정확한 발음을 구사할 줄 알아야 한다. 이 외에도 순발력과 판단력, 개성과 교양을 두루 갖춘 사람이 방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금희(1998, 74~75쪽)는 아나운서는 진행에 있어 안정감, 정돈된 느낌, 고급스런 느낌, 신뢰감 등의 이미지를 나타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상일(2002, 77~78쪽) 방송 진행자는 제작의도를 이해할 줄 알아야하고 프로그램 내용을 잘 숙지할 줄 알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같이 1990년대 이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방송언어 관련 기존연구의 관심사항은 대부분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보여지는 방송진행자의 자질과 프로그램 진행자로서의 기능 연구에 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라디오방송 프로그램과 관련한 방송언어 오용의 문제나 진행자의 자질에 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방송의 영향력이 증대되는 현실에서 라디오방송의 영향력은 텔레비전방송 못지 않다. 특히 라디오가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는 매체임을 감안할 때 전파력 면에서는 텔레비전방송 보다 그 영향력이 훨씬 높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라디오방송에서 실제로 언어를 구사하는 프로그램 진행자나 출연자, 방송 참여자들의 역할이나 자질, 기능과 더불어 방송언어 사용자가 잘못 사용하는 방송언어의 오용사례를 함께 조망한다면 보다 실효성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지 못한 부분인 라디오방송에서 나타나는 방송언어 사용의 문제를 구체적 사례를 통해 종합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3. 연구 문제

방송은 국민의 언어습관 형성이나 국민의 공감대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언어 생활에 철저한 모범을 보여야 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국민에 대한 언어교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라디오 방송에서 나타나는 방송언어의 오용사례가 유형별, 채널별, 방송언어 사용자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해 올바른 방송언어 사용을 위한 실천방안을 도출하는데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연구 문제 1>

라디오방송에서 방송언어 오용은 어떤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방송언어의 오용은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타난다. 실제 라디오방송 프로그램에서 나타나는 방송언어의 오용 사례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한 문

제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문제 2>

라디오방송에서 방송언어의 오용은 채널 특성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가?
라디오방송 프로그램에서 방송언어의 오용이 채널 특성(보도·교양, 오락, 음악)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프로그램 성격에 따른 방송언어 문제의 개선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 문제 3>

라디오방송에서 방송언어의 오용은 언어사용 주체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가?
방송언어에 대해 정식으로 전문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일수록 방송언어를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는 경향이 높다. 따라서 방송언어를 잘못 사용하는 주체별로 현실에 적합한 교육프로그램 마련 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4. 주요 용어의 조작적 정의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1) 전문 MC : 라디오방송 프로그램을 오랜 기간 진행해온 고정 출연자.
2) 연예인 : 가수, 탤런트, 개그맨 등으로 대중에게 인지도가 높은 라디오방송 프로그램의 임시 및 고정 출연자.
3) 일반 출연자 :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전문분야 직업인 및 전화 참여자.
4) 비어 : 들어서 혐오감이 생기도록 사물을 낮추어 부르거나 매우 천하고 저속한 말. 욕설이라든가 '주둥이, 대가리, 뱃놈' 따위의 말.
5) 속어 : 상대를 비하하는 표현 또는 욕설, 신체부위나 대상을 비하하는 표현, 사회적으로 금기시 되어 있는 언어. '앵벌이, 식순이, 킹카, 뽕 가다' 등의 표현.
6) 은어 : 속어와는 달리 비밀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말. '짜가, 짭새, 제비, 총대메다' 등의 표현.
7) 사투리 : 표준어 표기법과 맞춤법에 어긋나는 말, 표준 발음이나 억양을 변조 또는 왜곡하는 행위.
8) 외래어·외국어 : 번역하기 어렵다는 핑계로 외래어 및 외국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전문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행위. '내추럴하다, 딜럭스하다, 디스플레이, 쇼킹하다' 등의 표현.

Ⅱ. 이론적 논의

1. 라디오방송의 기능과 특징

라디오방송은 넓은 의미에서 무선통신에 의한 음성방송(라디오 방송)과 그 수신기(라디오 수신기)를 포함해 일컫는다. 하지만 좁은 의미로 라디오방송은 라디오라는 매체를 통해 청취자에게 전달되는 프로그램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라틴어로 방사한다(Radius)'는 의미에서 유래된 라디오의 개념은 일차적으로 한 송신자가 송출하는 어떠한 것을 전달해 주는 데에 맞추어져 있다. 즉 전달, 전송의 의미를 우선적으로 갖는다. 그러나 라디오는 전파하고 확대시킨다는 라틴어의 Diffus개념을 포함하면서 송신자와 수신자, 수신기, 프로그램과 조직화된 기구를 총괄적으로 망라하는 전송기술 자체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라디오 방송은 1927년 일제 강점기에 경성방송국에서 출발한 것이 시초이다. 당시 방송 편성은 일본 방송의 중계를 전제로 했으며 한·일 두 나라의 말을 혼합하여 사용했다. 창, 민요, 동화 등은 한국어로 방송되었으며 그 외 뉴스 및 경제 보도 등은 일본어로 방송되었다. 이러한 초기 라디오 방송 형태는 그 후 오랫동안 남아 우리 방송의 개념과 구조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우리나라 라디오 방송 역사는 격동의 한국역사와도 맥을 함께 한다. 해방 후 미 군정 시대의 방송국은 미 군정청 공보부 산하에서 운영되었는데 내용과 형식면에 있어 반공 이데올로기의 정착을 위한 홍보 프로그램, 미국식 방송제도와 편성의 도입 등 시대상을 고스란히 반영했다. 그러다가 1947년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방송이 시작된다. 우리나라 최초의 민영방송인 기독교방송(CBS)은 1954년에 설립되었으며, 1960년대를 거치면서 문화방송·동아방송 등이 잇따라 개국을 하며 상업적 라디오방송의 시대가 열렸다. 그 후 1973년 한국방송공사(KBS)가 설립되어 다양한 FM 음악방송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수십 개가 넘는 위성방송 채널도, 클릭 몇 번으로 무궁무진한 정보의 홍수를 제공하는 인터넷의 혜택도 없던 1970~80년대는 많은 사람들이 특정 라디오 방송에 주파수를 고정시키고 정해진 시간대에 어김없이 귀를 열고 듣는 것이 유일한 생활의 낙이자 낭만이었다. 지금과 달리 시각적 매체가 그다지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에 -그것이 불과 20~30년 전 한국 사회의 모습이다- 소위 스스로 낭만적이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의 여가 선용 방식이자 보통 사람들의 사회화 과정의 한 부분이었던 것이다. 여러 라디오 방송국이 설립되어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된 시기인 1960년대는 한국전

쟁이 끝나고 사람들이 어느 정도 정신적 여유를 찾아가던 시기와도 일치했다. 2,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방송의 청취율로 본다면 역시 음악방송들이 인기가 높다.□□60년대 라디오 시대□□라는 말과 함께 청취자를 사로잡는 여러 음악방송들이 탄생했다. 라디오는 소박하지만 친근한 인간미가 느껴지는 매체이다. 과거와 달라진 점이 있다면 과거 청취자들이 직접 손으로 써서 보내온 온갖 편지와 엽서를 정리하여 사연을 읽어주던 것이 DJ(Disk Jockey)의 주된 일이었다면, 이제는 모니터를 보며 오늘을 사는 청취자들이 보내온 갖가지 사연들을 온-라인 상에 동시에 올리는 실시간 서비스가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이러한 라디오 방송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간편성이다. 프로그램 제작과정이 간편하고, 휴대가 간편하여 손안에 잡히는 수신기와 이어폰 하나로 수신이 가능하다. 텔레비전과 달리 몰입성을 요구하지 않아 일을 하면서도 들을 수 있다.

둘째, 경제적이다. 시설, 기기, 인력, 경영, 제작, 수신기 가격에 이르기까지 운영비가 텔레비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셋째, 신속성이다. 제작·송출과정이 간편하기 때문에 중계차가 출동하지 않아도 언제든 현장 연결에 의한 생방송이 가능하고, 최근 휴대전화의 확산으로 신속성의 기능은 더욱 확대되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넷째, 직접성이다. 개인수용형태로 이용되는 라디오는 소용자가 청취를 할 때도 그 메시지가 자신만을 위한 것처럼 느끼게 된다.

다섯째, 창조성이다. 라디오 방송은 청취자로 하여금 상상의 나래를 펴게 하여 창의와 창조력을 부추기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맥루한(Marshall Mcluhan)은 매체 분류에서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여 라디오를 핫 미디움(Hot medium), TV를 쿨 미디움(Cool medium)[3]으로 구분하였다. 라디오는 이성과 지성에 냉정함을 유지시키면서 스스로 판단하도록 돕지만 TV는 매체 자체가 지닌 메커니즘에 의해 수용자는 무력한 개체로 전락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여섯째, 일반성이다. 라디오는 텔레비전에 비해 장소의 제약이 없고, 인간적 호소력과 송신자의 정보원에 대한 접근과 이를 수용자에게 제공하는 과정이 용이하다. 기동성과 즉시성이 쉽게 발휘될 수 있으며, 손쉬운 매체로서 라디오에 대한 접근성이 크다. 그리고 청취자에게 비계획적인 특징을 가질 수 있다.(김한철, 2002, 326~328쪽)

라디오방송에서는 사람의 목소리가 최대의 강점이다. 따라서, 화자의 억양, 액센트, 속도 변화 등 음성의 다양성에 의해 진행자의 '인간적 특성'이 크게 부각된다.

---

3) Hot medium : 감각적 균형을 가지며 상상력을 요구하고 많은 정보를 함축.
Cool medium : 허위적 의미를 수반하고 기호로부터 현실을 파악하는데 창의적 노력을 적게 요구하고 적은 정보를 전달한다.

이때 오락프로그램에서 음악이나 토크는 하루 일과를 지내는 가운데 단지 벗삼기 위한 대상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오락프로그램에 있어서 토크의 일상성과 가벼움은 여전히 본질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텔레비전의 전화 참여 프로그램은 청취자가 말을 하는 동안은 화면을 채울 것이 없다는 시각적 공백 상태 때문에 인기 있는 장르가 될 수 없다. 그러나 라디오의 경우 방송진행자와 참여자가 모두 비가시적이며 동등하게 음성을 교환하는 특징이 있다. 또한, 텔레비전 매체는 수용자가 권력층의 정치적 영향력에 대한 도전이나 저항, 비판을 할 수 없도록 피드백을 인정하지 않는 권위적 매체로 인식되었던 반면, 라디오는 전화 참여 프로그램같이 매체의 특성을 이용하여 정치적 저항과 도전을 부분적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었던 민주적 매체로 이해된다. 따라서 참여 프로그램의 핵심적 의미는 수용자 대중의 토론, 의견제시, 비판 등의 기능에 있다. 오락 프로그램에 전화 참여를 통해 방송진행자와 대화를 주고받는 청취자들의 방송 참여 목적은, 특정 주제에 대해 자신의 뚜렷한 의견을 전달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고 전파를 타는 데 있다. 이들에게 있어 전화참여는 흥미로운 일이며, 이들은 방송에 참여하는 행위 자체를 즐길 뿐 아니라, 자신을 노출하며 '과시'하는 것이다. 시각적 요소 없는 라디오에서 소리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점은 두말 할 나위가 없거니와, 청취자는 음성만을 들으면서 어느 한 개인의 사적 이야기의 흐름을 따라간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현재 라디오 방송국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부로부터 방송국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제도적으로는 문화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받아 정보통신부 장관이 방송국 설립을 허가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전파법 제4조 무선국 개설에 관한 조항을 보면, 무선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발사하는 전파가 미약하거나 수신전용 무선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선국은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라디오 방송과 텔레비전 방송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무선국으로 통칭하여 취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라디오 방송은 지방 독립방송사를 제외하고 전국 네트워크를 소유한 KBS, MBC, SBS의 경우 텔레비전 방송사와 겸영됨에 따라 텔레비전에 라디오가 종속되고 있는 형편이다.

FM(Frequency Modulation)은 원래 고품질의 음질로 음악위주의 방송을 목적으로 한 방송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FM은 인기 연예인 위주 진행자를 중심으로 청취율 상승을 통한 방송사 이미지 고양을 위해 FM의 오락적 AM(Amplitude Modulation)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이런 청취율 위주의 방송은 소수 대상 프로그램을 소외시킴으로써 라디오 청취 대상 계층을 방송사 임의로 축소시키고 있다. 예컨대 오후 2시 AM은 주부 위주로, FM은 젊은층 및 젊은 주부 위주로 운영됨에 따라 다른 계층의 사람들은 이 시간대에 라디오를 청취하기 어렵게 되는 것이다. 최근 들

어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 가속화되면서 인터넷을 통한 라디오 방송이 확산되고 있고 공중파 방송의 인터넷 실시간 방송은 청취자 확보 전략으로 적극 추진되고 있으며 일부 수도권지역에서는 DMB(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4]방송도 이뤄지고 있다.

2. 방송언어의 개념과 특성

1) 방송언어의 개념

방송언어는 넓은 의미에서 방송에서 사용되는 모든 언어를 말한다. 방송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문자언어(written language)와 음성언어(spoken language)로 나뉘는데 그 가운데서도 음성언어가 중심이 된다. 방송언어도 방송인의 방송출연 성격에 따라 어느 정도 구분이 가능하다. 즉 아나운서나 기자, 리포터, 기상캐스터 등 여러 영역의 전문방송요원들처럼 어느 정도 방송인으로서의 전문성을 가졌거나 고정적으로 방송에 임하는 직업 군이고 또 하나는 대담이나 일회성 출연으로 방송에 나오게 된 전문성이 결여된 일반인의 방송언어가 또 다른 유형이다. 이에 따라 방송언어도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전문성을 가진 방송인들의 방송언어를 협의의 방송언어라 하고 여기에 비전문적인 방송인의 방송언어를 포함한 것이 광의의 방송언어라 할 수 있다.(성기철, 2003, 15~16쪽) 다시 말해 방송언어는 입말인 음성언어와 글말인 문자언어로 나뉘는데 일반적으로 방송에서 사용하는 음성언어를 말한다. 그러나 컴퓨터 시대와 함께 텔레비전의 자막처리가 급증하고 있고, 캡션 자막방송 등 영상문자의 사용이 확대되기 때문에 문자언어도 방송언어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해가고 있다.(김상준, 1992, 20쪽)

2) 방송언어의 특성

(1) 표준어

방송은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역과 사회계층을 떠나 누구나 듣는 즉시

4) DMB(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 다양한 멀티미디어 신호를 디지털 방식으로 수신기에 제공하는 방송 서비스. 전송방식과 서비스권역 등에 따른 분류로 지상파DMB와 위성DMB로 구분.

이해할 수 있는 보편적인 말이어야 한다. 또한 방송언어가 시·청취자들에 대한 교육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표준어라야 한다. 표준어는 교양인의 순화된 품위 있는 공통언어이기 때문에 방송에서의 표준말 사용은 국민의 정서적 순화와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 물론 드라마 등에서 특수 효과를 얻기 위해 사투리를 부득이하게 써야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나칠 정도의 사투리는 일반 시·청취자들의 언어생활에 역기능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는 만큼 반드시 표준어를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2) 생활언어와는 다른 특성

방송언어는 주로 구어체 음성언어를 매체로 하는 것이 특징이다. 일정하게 제한된 시간 안에 전달해야 하는 정보내용을 효과적으로 명료하게 시·청취자에게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그 문맥이 보통 회화 때 사용되는 말과 같이 단편적인 문맥이어서는 안 된다. 요즘 자막을 포함해서 여러 유형의 문자언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대되고 있는데 이런 문자언어도 방송언어임에 틀림없지만 방송언어라면 아무래도 음성언어가 중심이 되고 일상언어와는 달리 방출과 동시에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녹음이나 녹화로 보존이 가능하다는 점이 다르다.(성기철, 2003, 16쪽)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3) 전파의 신속성

방송언어는 정보의 전달 면에서 어떤 것보다도 가장 신속하게 전달되고 가청권 안에서는 방송과 동시에 모든 시·청취자에게 실시간으로 전달된다.

(4) 일방성과 일면성

발화자와 시·청취자가 주고받는 말이 아니라 오직 시·청취자에게 보고 듣기만을 강요하는 일방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정보내용을 효과적으로 명료하게 시·청취자에게 효과적으로 이해가 잘 되게 전달하기 위해 일상 회화 때와는 다른 전달 방법에 대한 의식적인 노력과 기술이 필요하다.(최진근, 1995, 33쪽)

또한 방송언어의 특성을 언어적 측면, 사회적 기능면, 기술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다. 첫째 언어적 측면에서 방송언어는 언어 자체내의 내부적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표준어이어야 하고, 주로 청각에 호소하는 음성언어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이해되기 쉬운 말이어야 하며 문어체가 아닌 구어체이어야 한다.(김상준, 1990, 10~11쪽) 둘째, 사회적 기능 면에서 대중성, 현장성, 직접성, 현실성 등을 지닌다. 여기서 대중성이란 방송언어는 남녀노소의 구별 없이 공유됨을 이르는 것으로 방송언어가 무한정으로 전파됨을 의미한다. 현장성이란 방송이 언어

와 영상에 의해 가정이나 직장 등 생활의 장에서 생생한 현장을 직접 접하게 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직접성과 상통하는 것이며 현장성, 직접성을 지니게 되므로, 신문 잡지나 여타의 매스 미디어와는 다른 현실성을 시·청취자에게 제공하게 된다. 셋째, 기술적 특성으로는 1초에 30만 킬로미터라는 빠른 속도의 전파를 전달수단으로 하는 방송이 신문이나 그 밖의 매스 미디어에 비해 속보성, 신속성의 특성을 띠며, 더불어 동시에 어느 곳에나 방송이 미치는 동시성을 가진다. 또한 신문, 잡지 등 정기적 간행물과 달리 하루 종일 방송되는 일상성을 가지며, 지역적으로 제약을 받지 않고 광범위한 지역에 똑같은 내용이 전달되는 동소성이 있다.

이와 같은 방송언어의 개념과 특성에 따라 방송언어의 규범적인 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남기심(2003, 68~70쪽)에 따르면 방송은 표준어를 사용해야 한다. 방송에서 쓰는 말은 지역, 계층, 남녀노소 구분 없이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지역 간, 계층 간, 세대간에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 이것은 표준어를 사용함으로써 해결 할 수 있다. 표준어는 한 나라를 대표하는 말이고 가장 널리 통용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이다.

둘째로 방송언어는 어법에 맞는 말이어야 한다. 우선 적절한 언어를 선택하고 우리말 문법에 맞는 문장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주로 음성언어로 이뤄지는 방송의 특성상, 들었을 때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는 삼가고 전형적, 중립적인 어순의 간결한 말을 써야 한다.

셋째는 방송언어는 순화된 말이어야 한다. 방송언어는 시범성, 교육성을 가지기 때문에 바르고 고운 말을 어법에 맞게 잘 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반말, 욕설, 비속어, 은어 등의 사용을 삼가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 청소년들은 방송에서 흘러나오는 방송언어나 출연자들의 말이나 몸짓 하나 하나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넷째, 방송언어는 지나친 외래어와 외국어의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들어 세계화의 추세로 우리말을 경시하고 외국어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생겼다. 특히 컴퓨터 기술과 정보통신산업이 발전하고 전문용어들이 방송에 많이 소개되면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어 우려할 만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남기심, 2003, 77~78쪽)

이밖에도 올바른 방송언어가 갖춰야할 기본조건으로 방송의 근간을 이루는 음성언어를 방송에서 표현할 경우 반드시 지켜야할 규범이 방송심의 규정(방송위원회, 2002) 제18조와 제52조, 제56조에 명문화되어 있고,[5] 우리나라의 국가 기간방송사인 KBS는

5) 제18조(바른 언어생활) 방송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국민의 바른 언어생활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1990년에 제정한 방송강령 제4항에서 “방송은 표준어 및 표준발음법에 따른 언어와 품위 있고 순화된 우리말을 사용해 국어문화 확산에 이바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KBS는 아나운서실내의 한국어연구회에 방송 언어가 갖춰야할 조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여 교육과 연수에 활용하고 있다.

① 표준어라야 한다.
② 알아듣기 쉽고 분명하여야 한다.
③ 시·청취자 중심의 경어를 사용한다.
④ 품위 있는 말을 써야 한다.
⑤ 지나친 수식어를 피한다.
⑥ 음운의 생략이 구어적이어야 한다.
⑦ 감탄사의 사용을 가급적 피한다.
⑧ 조사와 용언에 제약이 많다.
⑨ 수의 표현에 조심한다.
⑩ 윤리적인 언어 표현이어야 한다.
⑪ 자연스럽고 생동감이 있어야 한다.
⑫ 외국어나 외래어, 사이비 외래어의 남용을 삼가야 한다.(김상준, 1998)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방송에서는 바르고 고운 말, 아름답고 정감이 넘치는 말을 써야 함을 쉽게 알 수 있다. 가장 이상적인 말은 초등학생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 한번 듣고도 알 수 있는 말, 친근감을 주는 말일 것이다. 특히 청각 의존도가 높은 라디오방송 프로그램에서는 쉽고, 간결하고, 명료하면서 순화된 방송언어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상의 조건이나 규범을 준수하고 있는 방송은 거의 없다. 따라서 라디오방송 프로그램제작에 관계된 제작자나 진행자, 출연자, 단순 참여자 등 직·간접적으로 라디오방송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방송언어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고 방송언어를 바르게 사용하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제52조(방송언어)
① 방송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국민의 바른 언어생활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② 방송언어는 원칙적으로 표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특히 고정 진행자는 표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방송은 바른 언어생활을 해치는 억양, 어조 및 비속어, 은어, 유행어, 조어, 반말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3조(사투리 등)
① 방송은 사투리나 외국어를 사용할 때에는 국어순화의 차원에서 신중하여야 하며 사투리를 사용하는 인물의 고정유형을 조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6조(잡담, 사담 등) 방송은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잡담이나, 공중에게 유익하지 않은 사담을 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3. 방송언어문화의 사회적 영향

사회가 변화하면서 사람들의 언어도 변화한다. 그리고 방송의 언어 또한 변화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모든 것이 변한다는 전제 속에서도 방송언어의 변화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은 개인간의 언어는 단지 의사소통이라는 한정된 범위에서만 이뤄지지만 방송언어는 의사소통이라는 미시적 범주에서 벗어나 사회적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공적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방송이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해서는 수많은 논의가 있지만 여기서는 방송 일반이 아닌 방송의 언어문화를 중심으로 사회적 영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언어변화의 촉진

방송의 언어는 놀라운 파급력을 갖고 있다. 그것은 거의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다중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모방 본능을 자극하게 된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새로운 말이 창출되고, 그것이 유포되고, 그것이 사용된다. 그러한 결과는 언어의 변화를 가져온다. 그 결과는 여러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다. 규범을 준수하면서 곱고 새로운 말을 만들어 낼 수도 있는가 하면 언어를 형편없이 혼탁하게 만들 수도 있다. 이 점에서 방송은 사회적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앞으로의 사회가 상대주의를 바탕으로 한 개인화의 경향을 띠게 되고 그 위에 권력화의 경향까지를 동반하게 되면 언어변화는 놀라울 정도의 가속도를 가지게 될 우려가 있다. 너도나도 개인의 가치를 앞세우면서 개별성을 추구하는 나머지 무수한 신조어를 만들어 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힘을 가진 신조어는 살아 남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것은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인기 있는 연기자나 프로그램에 의해 조성되는 신조어는 대단한 영향력을 갖게 될 것이며 방송 관계자들은 그러한 언어의 창출에 더욱 힘을 기울이게 될 것이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현실의 언어는 방송이 의도했든 하지 않았든 관계없이 그 방향으로 변화를 계속하게 된다.

이럴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방송의 사회적 영향에 관한 것이다. 사회적으로 언어 변화를 촉진한다는 점에 대한 각성이 없이는 방송 언어문화는 극단적인 개별화로 치달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점은 방송의 책임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특히 세계화와 통일의 문제까지가 여기에 결합하면 방송의 언어문화는 자칫 질서를 잃게 될 염려가 있다는 점에 착안해야 한다.

2) 의식의 구조화 가속

방송을 통하여 전달된 언어가 주목되면 사회적 표상으로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 그

가장 좋은 예가 유행어다. 한 번 방송된 언어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전달하는 기호의 일차적 기능을 넘어서서 무엇인가를 상징하는 이차적 기능을 갖게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의 언어문화는 사회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게도 하고, 형성되지 않는 것을 형성해 내기도 한다. 그 동안 유행했던 삼행시의 열풍만 해도 그 좋은 예가 된다. 삼행시가 사회적 정형으로 자리를 잡게되면 모든 사고가 거기에 집중되고 삼행시 적으로 사고하게 된다. 이런 경향을 내보이는 사회는 당연히 경박하고 비속한 풍조를 띠게 된다.

방송의 이러한 영향력은 매체가 갖는 교육적 효과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며 언어와 사고의 밀접한 관계 때문에 현실적으로 구체화되는 과정을 거친다. 방송은 일종의 교육적 시범행위이며, 그 시범에 의해 사람들은 실천하고 그런 의식을 구조화하게 된다.

앞으로의 사회가 세계화, 통일, 개인화, 권력화의 경향을 띠게 되고, 이러한 경향을 바탕으로 형성되는 언어문화가 그것을 방송하는 매체를 통해 사람들의 의식으로 구조화된다면 급속한 파급력과 함께 놀라운 실천력을 갖게 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언어를 통해 형성된 의식은 현실 속에서 위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3) 상징의 정형화 촉진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방송의 언어문화는 상징성을 발휘하게 된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어떤 부류 혹은 계층에 속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굳어짐으로써 사람들은 그것을 생활하게 된다. 앞으로 오는 사회가 개인화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음에 비해서 이러한 정형화 현상은 그것에 역행하는 현상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상징의 정형화는 문화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표상을 소유하는 것이 된다. 그리고 표상의 소유를 통해서 정체성을 확인 받고 싶어한다. 더구나 그 표상이 권력의 소유와 밀접한 관계를 가질 때에는 더욱 그러한 현상이 가속화된다. 개성을 극도로 강조하는 오늘의 젊은이들이 한결같이 배낭을, 그것도 특정 상품에 집중하여 매고 다니는 것은 이런 경향을 뒷받침한다. 방송이 이러한 경향을 조성하게 되면 그것은 사회의 다양화에 역행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것은 애당초 방송의 의도가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결과로서 그러하게 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말을 하는 사회를 상상해 보면 그 폐해가 어떤 것인지를 짐작할 수 있다.(김대행, 2001, 89~92쪽)

이처럼 방송의 언어문화는 우리 사회에 여러 면에서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라디오방송의 기본은 언어이다. 라디오방송의 메시지가 좋은 내용의 바른 언어로 구성되면 방송언어문화가 신장되고 그로 인해 건전한 사회분위기도 형성될 것이다. 따라서 라디오방송의 기본인 방송언어를 순화시키고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연구는 꾸준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Ⅲ. 연구방법

1. 분석 방법

방송언어의 오용사례가 유형별, 채널별, 언어사용자별로 어떻게 나타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내용분석 방법을 채택하였다.

내용분석방법은 매스 미디어 연구자들 사이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 방법으로, 방송이나 인쇄매체의 내용을 조사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분석 방법이다. 내용분석은 어떠한 자료로부터 그 문맥에 대해 타당한 준거들을 만드는 기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김동규, 유재천, 2000, 198쪽) 또한 내용분석은 말이나 글로써 표현된 인간의 의사가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간의 문화적 배경이나 맥락적 준거, 시간과 언어 등의 상이한 요소 때문에 왜곡될 수 있다는 전제로, 애매한 내용에 대한 인상적인 판단보다는 수적 용어(Numerical Terms)를 사용하여 보다 간명하게 내용을 구분해보려는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의 연구목적이 라디오방송 프로그램에서 나타나는 방송언어 오용실태를 분석해 바람직한 라디오방송언어의 방향을 찾는데 있는 만큼 내용분석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어 분석방법으로 채택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내용분석은 체계성, 객관성, 수량적 특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여기서 체계성이라는 것은 분석 내용을 명백하고 일관성 있게 적용되는 규칙에 따라 선택하는 것을 의미하며, 객관성은 조사자의 개인적 특성이나 편견이 분석결과에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수량적 특성은 메시지를 정확히 설명하고자 하는 것을 의미한다.

위와 같은 객관성, 체계성, 수량적 특성이라는 기본 요소를 고려하여 본 논문에서는 분석대상 및 분석기간, 분석단위와 유목 등의 선정을 다음과 같이 하였다.

2. 분석 대상 및 분석기간

본 논문의 연구를 위해서 사용한 분석대상은 KBS 방송언어심의위원회[6]의 “방송언어 심의 결과” 중 라디오방송 프로그램과 관련 된 내용이다.

KBS의 방송언어심의 결과를 분석대상으로 채택한 이유는 KBS가 2004년부터 “한

6) 방송언어심의위원회는 1999년 초에 설치되었으며 TV와 라디오 각 채널, 전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방송에 부적합한 언어표현에 대한 심의를 한다.

국어능력검정시험”을 주관하고 있고 2005년 10월부터 국가가 지정한 국어 상담소로 국민의 국어 순화를 위한 공식 기관이며, KBS의 경우 우리나라 공중파 방송 3사(KBS, MBC, SBS) 중 유일하게 방송전문가로 구성된 방송언어심의위원회가 자체적으로 라디오방송 프로그램의 방송언어까지 심의하기 때문에 심의 내용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어 본 논문의 연구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는데 적합한 자료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KBS는 제1라디오, 제2라디오, 제3라디오, 제1FM, 제2FM, 사회교육방송, 국제방송(KBS WORLD RADIO) 등 7개의 라디오 방송 채널이 있으나 연구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제3라디오(장애인 및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방송), 제1FM(고전음악과 국악 전문채널), 사회교육방송(남북화합과 교류 채널), 국제방송(대외홍보 방송)에 대한 방송언어 심의내용은 제외하였다. 그리고 제1라디오, 제2라디오, 제2FM별로 각각 4개의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해당 프로그램의 방송언어 심의내용을 중심으로 방송언어의 오용사례를 분석하였다. 채널별로 각각 4개의 프로그램만을 선정해 분석한 이유는 라디오방송 전체 프로그램의 방송언어 심의 내용을 분석할 경우 그 자료가 너무 방대하여 분석과정에 혼란이 있을 수 있고, 표본을 추출하여 분석하는 것만으로도 라디오 방송에서 나타나는 방송언어의 오용유형이나 채널 특성에 따른 오용차이, 방송언어 사용자별 오용차이를 알아보는데 충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프로그램의 선정 기준은 오전, 오후, 낮 시간과 밤 시간 등 시간대별로 비슷한 시간대에 방송되는 프로그램을 1개씩 선정하였고 프로그램 진행자의 지명도, 청취자 참여정도, 청취율 등도 고려하였다. 기간은 2004년 11월부터 2005년 5월까지 방송된 가을 편성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는 봄에 편성되었던 프로그램들이 가을 편성에서는 제외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 기간 모두 7차례의 방송언어 심의위원회의에서 총 243건의 방송언어 오용 사례가 있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들 243건을 중심으로 방송언어 오용 실태를 분석하였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분석 대상 프로그램】

① 제1라디오 : 우리나라 기간방송 채널로 24시간 방송한다. 정시 뉴스, 기획 보도물, 시사정보, 토론프로그램, 기상정보 등 교양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뉴스전문채널로 특성화하고 있고, 프로그램 전후나 중간에 광고 방송을 하지 않는 특성이 있다. 방송 프로그램 진행자는 기자, 아나운서, 프로듀서, 시사전문가 등이 맡고 있다. 제1라디오에는 정시 뉴스와 정시 기상정보를 제외하고 매일 총 20개의 프로그램이 편성되어 있다. 분석대상 프로그램과 분석대상 사례수는 <표 3-1>과 같다.

<표 3-1> 제 1 라디오 분석대상 프로그램

[단위 : 건수]

프로그램명	방송시간	방 송 내 용	분석대상사례수
시사플러스	09:10~10:58	뉴스 및 시사정보	5
라디오정보센터	12:20~13:58	시사현안 집중 대담	3
경제투데이	16:10~16:58	경제관련 뉴스 및 대담	2
라디오24시	23:10~25:00	종합 시사뉴스 및 대담	2
합 계			12

② 제 2 라디오 : 교통, 생활정보, 청취자 노래방, 드라마 등 오락 프로그램 중점적으로 편성하는 라디오 채널이다. 하루 22시간 방송하며 정시 뉴스와 교통정보를 제외하고 총 14개의 프로그램이 매일 편성된다. 뉴스를 비롯한 모든 프로그램 전후에 광고 방송을 하며 프로그램 진행자는 대부분 가수와 개그맨, 탤런트 등 연예인이다. 분석대상 프로그램과 분석대상 사례 수는 <표 3-2>과 같다.

<표 3-2> 제 2 라디오 분석대상 프로그램

[단위 : 건수]

프로그램명	방 송 시 간	방 송 내 용	분석대상사례수
안녕하세요	09:10~11:00	청취자사연 및 가요	28
싱싱한 12시	12:15~14:00	청취자 전화 대담 등	41
뮤직토크	16:05~18:00	청취자 사연 및 가요	33
행복충전	20:05~22:00	출연자 대담 및 가요	45
합 계			147

③ 제 2 FM : 젊은 층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대중음악 전문채널로 청취자나 출연자와의 대담, 청취자 신청 음악 방송 등으로 프로그램이 구성되고 프로그램에 연

예인들의 출연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하루 24시간 방송하며 매일 총 14개의 프로그램이 편성된다. 프로그램 중간에 광고방송을 한다. 프로그램 진행은 아나운서와 연예인, 대중음악 평론가 등이 맡고 있다. 분석대상 프로그램과 분석대상 사례 수는 <표 3-3>과 같다.

<표 3-3> 제 2 FM 분석대상 프로그램

[단위 : 건수]

프로그램명	방 송 시 간	방 송 내 용	분석대상사례수
골든팝스	11:00~12:00	외국의 대중음악 소개	7
가요광장	12:00~14:00	국내 대중음악 소개	30
볼륨을높여요	20:00~22:00	청취자사연, 대중음악	20
키스더라디오	22:00~24:00	출연자대담, 대중음악	27
합 계			84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3. 분석단위와 분석유목의 선정

1) 분석단위

언어와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내용분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수준에서 분석단위(unit of analysis)를 설정하느냐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전체 분석 대상을 하나의 단위로 보는 경우에는 세세한 내용이 희생될 수 있으며, 이를 피하기 위하여 최하위 요소를 분석단위로 설정하게 되면 분석이 불필요하게 복잡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절한 수준에서 분석단위를 결정하는 것이 알차고 효율적인 내용분석의 전제조건이 된다.

방송 프로그램에서 사용된 바람직하지 않은 방송언어의 수를 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예컨대 전체 프로그램을 서너 개의 “코너”로 나눈 다음 각 에피소드를 하나의 단위(코너)로 하여 각각의 코너에서 사용된 잘못된 언어의 수를 세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언뜻 보기에는 아주 편리한 방법처럼 보이지만 ‘무엇이 하나의 잘못된 언어를 구성하느냐?’ 하는 문제에 이르면 어려움을 겪게 된다. 즉 바람직하지 못한 단어가 하나 있을 때 그 단어 하나만을 잘못된 단어로 보아야 할 것이냐, 그 단어를 포함

하는 문장을 하나의 잘못된 경우로 보아야 하느냐, 아니면 그 단어가 사용된 화순(Speaking Turn) 전체를 하나의 잘못된 경우로 보아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생겨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혼란은 확고하게 분석단위가 결정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이다.

분석 가능한 단위는 장면(scene), 화순(speaking turn), 문장, 의미단락(basic propositional unit), 그리고 단어로 나누어 볼 수 있다.(임태섭, 1996, 239쪽)

장면은 동일한 세트 내에서 진행되는 하나의 이벤트를 말하며, 화순은 주어진 장면 내에서 한 사람이 말을 시작해서 끝내는 순간까지를 포함하는데, 화순을 분석단위로 설정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생겨난다.

첫째 화순은 내용적 구성요소가 아니고 형식적 구성요소이기 때문에 그 길이가 들쭉날쭉하여 동일한 분석단위로 보기는 어렵다.

둘째 화순이 긴 경우에는 부적합한 언어들이 포함될 확률이 아주 높은데 이들을 모두 하나로 묶어 취급한다는 것도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적합하지 않은 일이다.

이에 비해 단어를 분석 단위로 설정하면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 우선 단어는 형식적으로 명백히 구분되기 때문에 단위화가 용이하며 또 잘못된 용례의 수를 세는 데도 아무 문제가 없다. 하지만 단어는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도 가지고 있다. 방송언어를 분석하다보면 단어 이상의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문장 구성의 오류라든지 구나 절 전체를 통해 일어나는 잘못 등을 평가해 낼 방법이 없다. 또 단어를 분석 단위로 삼으면 분석이 너무 복잡해진다는 문제점도 파생될 수 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문장은 형식적인 단위이다. 따라서 단위화가 쉽다는 장점을 갖는다. 하지만 형식적인 단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단점을 갖게 된다. 이를테면 여러 개의 복문 구조나 중문구조가 포함된 문장의 경우 그 문장은 내용도 많고 매우 길어지게 되지만 한 문장인 반면에 축약이나 요약을 쓰는 경우, 또 짧은 감탄문의 경우에는 한 문장이 한·두개의 음절에 그칠 수도 있다. 이런 문제가 문장을 분석 단위로 삼는데 어려움을 준다.

마지막으로 의미단락은 하나의 독립적 의미가 시작해서 끝나는 부분까지를 일컫는 것으로 단어, 문장 화순과는 달리 형식적 구성요소가 아니라 내용적 구성요소이다. 의미단락은 그 길이에 있어서는 문장과 가장 유사하지만 그렇다고 문장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문장이 짧은 경우는 두 문장이나 세 문장이 합쳐져서 하나의 의미 단락을 이룰 수도 있고 반대로 문장이 길고 한 문장 안에 두 개나 세 개의 독립된 의미 부분이 있다면 각 부분이 각각의 의미 단락도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의미를 완전하게 함의하고 있는 단문의 경우에는 한 문장이 한 의미 단락과 일치할 수도 있다.

의미 단락은 형식적 구성요소가 아니고 내용적 구성요소이기 때문에 단위화가 어렵다는 단점을 가진다. 하지만 이 단점을 제외한다면 그 외에 눈에 띄는 단점을 찾아보

기 어렵다. 의미단락은 내용을 중심으로 단위화 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한 의미단락의 길이가 고르게 나타난다. 이는 같은 분량의 길이에서 잘못된 것을 찾아내야 한다는 측면에서 무척 바람직하다.

이상의 분석 가능 단위는 물론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KBS 방송언어심의위원회의 "방송언어 심의 결과"를 자료로 하여 음성언어에 의존하는 라디오방송 프로그램에서 나타나는 방송언어 오용 실태를 분석하는데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의미단락을 분석단위로 설정하였다. 하지만 의미단락의 기준이 여의치 않은 경우, 예를 들어 한 의미단락에서 잘못된 단어가 세 개 이상 들어 있을 때는 단어를 분석 단위로 삼는 방법도 병행하여 의미단락의 단점을 보완하려 하였다.

2) 분석기준

방송 언어가 오용되고 있는 현실에서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논문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다. 그리고 각각의 연구자들이 내세우는 오용사례 분석 기준도 대게 비슷하다. 하지만 방송이 시·청취자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방송언어가 사회의 언어문화와 시·청취자의 언어습관 형성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방송언어의 오용사례를 판단하는 분석 기준은 좀더 현실적인 추세까지 포함해 체계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그러나 KBS방송언어 심의위원회의 "방송언어 심의 결과"는 대부분 특정 프로그램의 장르나 지역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포괄적인 평가를 내리는데는 한계가 있다. 즉 잘못된 어법, 사투리, 비속어 사용, 외래어 남용 등과 같은 방송언어가 바르지 않게 사용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 잘못 사용된 방송언어를 발견해 내고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심의하기 때문에 방송언어의 순화를 위한 기능 면에서는 효과가 있겠지만 방송 언어의 외적인 면 예를 들어 국민의 건전한 생활 양식 조성이라는 사회 공익적 기능과 같은 문제에서는 소홀 할 수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방송언어 심의 결과"를 기초자료로 하여 방송언어의 오용이 어떤 유형으로 나타나는지를 종합적으로 분류해 분석하고, 국어순화 적인 면과 국민의 건전한 사고 방식을 저해하는 요소까지도 함께 분석해 바른 방송언어 정착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잘못 사용되는 라디오방송언어를 보다 체계적이고 포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현재 많은 사람들이 기준으로 이용하고 있는 임태섭의 방송언어 분석 기준인 순정성, 공식성, 공손성, 공정성, 세련성(임태섭, 1996, 239쪽)을 분석기준으로 채택하였다. 라디오방송 프로그램에서 나타나는 방송언어 오용에 대한 실태분석은 이 기준에 따라 이루어 질 것이다.

임태섭의 방송언어 분석기준을 채택한 이유는 우리나라 방송사 중 유일하게 한국어연구회를 운용하고 있는 KBS의 한국어연구회 자문위원으로서 우리나라 방송언어의

현실을 직시하며 나름대로 체계적인 기준을 제시해 학계에서 객관적인 인정을 받고 있는 상태이고, 이 기준을 적용해 방송언어의 오용실태를 분석할 경우 국어 순화적인 측면 즉 국어의 철자법이나 발음, 외래어, 사투리, 비속어 등과 관련된 오류뿐만 아니라 국어 순화나 바른 언어생활을 크게 해치지는 않지만 국민의 사고 방식을 건전하지 못하게 하는 많은 방송언어들을 가려낼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권력이나 세력이 있는 사람에게 유리한 언어, 여성이나 힘없는 사람을 차별하는 언어, 상대방의 인격이나 외모, 능력 등을 공격하는 언어, 사고 능력을 단순하게 만드는 언어 등이 바로 그런 것들인데, 이들은 엄밀하게 따져서 국어순화의 원칙에는 직접 위배되지 않지만 출연자 자신이나 시·청취자들에게 악영향을 줄 소지가 충분히 있는 방송언어들인 것이다.(최윤락, 1999, 4~5쪽) 따라서 임태섭의 평가 기준을 채택할 경우 바로 국민의 사고방식을 건전하지 못하게 하는 방송언어들까지 찾아 낼 수 있어 좀더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방송언어 오용실태 분석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 순정성

순정성이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 강조하는 바른말, 고운 말 사용원칙에 합당한 언어의 속성을 일컫는다. 꼭 순수하고 바른 우리말을 써야한다는 이 기준은 우리 사회가 가장 중시하는 방송언어의 조건이기도 하다. 순정성을 해치는 언어로는 비어, 속어, 은어, 유행어, 사투리, 비격식적인 표현, 표준말에 어긋난 표현, 외래어, 외국어, 외래문법 등을 들 수 있다.

<표 3-4> 순정성과 관련한 세부항목

비 속 어	1)상대를 비하하는 표현 또는 욕설 2)신체부위나 대상을 비하하는 표현 3)사회적으로 금기 시 되어 있는 언어 4)특정 집단의 은어 및 불필요한 조어 5)불쾌감을 일으키는 속어
사 투 리	1)표준어가 아닌 단어 및 표현 2)표준 발음이나 억양을 변조 또는 왜곡시키는 행위 3)각 지방의 고유한 방언이나 억양은 제외
외 래 어	1)불필요한 외래어나 외국어 2)잘 쓰이지 않는 한자어 3)오랫동안 우리말처럼 사용된 외래어는 제외
잘못된 어법	1)잘못된 발음을 하는 경우 2)잘못된 철자법(자막의 경우) 3)단어의 뜻을 혼동해서 사용하는 경우

(2) 공식성

방송 언어가 갖춰야할 두 번째 속성은 공식성이다. 사석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허용되는 한 친근한 표현을 사용해도 무방하고 상황이 허용하는 한 '야한' 또는 '진한' 표현을 쓸 수도 있으며 때로는 과장된 표현을 쓸 수도 있다. 그러나 공식성을 유지해야 하는 방송 언어는 두 사람 사이의 관계나 상황에 따라 쉽게 변할 수 없는 성격을 가진 언어이다.

왜냐하면 방송이 출연자들 사이의 사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주로 하는 게 아니라 출연자들과 시·청취자들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방송언어는 품위와 격식을 지켜야 함은 물론 감정도 절제해야 하는 언어이다.

<표 3-5> 공식성과 관련한 세부항목

선정적 언어	1) 음란한 표현 또는 성적 함의를 일으키는 표현 2) 성행위나 은밀한 신체부위를 연상시키는 언어
비격식적 언어	1) 반말 2) 사적인 호칭, 또는 지나치게 친근한 호칭 3) 지나치게 사적인 언어
과 장 어	1) 불필요하게 사용된 최상급 2) 불필요하게 사용된 극단적 언어(엄청난, 졸속, 열악 등) 3) 현상을 필요 이상으로 과장하는 표현 4) 이분법적 사고나 양분론을 드러내는 표현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3) 공손성

방송언어가 가져야할 세 번째 속성은 공손성이다. 공손성이란 권위주의 사회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아랫사람이 웃사람에게 표시하는 복종적 의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체면을 손상시키지 않는 사려 깊은 언어 행위를 일컫는다.

공손성은 크게 출연자간 공손성과 대 관객 공손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출연자 간의 공손성이란 출연자들이 서로의 체면을 지켜가면서 프로그램을 진행해 나아갈 때 유지되는 것이고, 대 관객 공손성이란 출연자들이 시청자 또는 청취자들의 체면을 고려하여 적절한 언어행위를 할 때 유지되는 것이다.

<표 3-6> 공손성과 관련한 세부항목

상대방 성격 비난	1) 몸가짐, 품행, 언행, 행동 등이 조심스럽지 못하다 /침착하지 못하다/단정(방정)하지 못하다/정결하지 못하다 /비정상적이다/상스럽다/저속하다/성이나 나이에 맞지 않는다는 비난 2) 잘난 채 한다/언행이 일치하지 않는다/신뢰감이 없다는 비난 3) 도리나 경우에 어긋난 비난 4) 진실하지 못하다, 성실하지 못하다는 비난 5) 예의가 없다, 억지를 부린다는 비난
상대방 품위 손상	1) 외모/옷차림/취미 등에 대한 비난 2) 배우자/애인/친구 등에 대한 비난 3) 학벌/집안/사는 모습/경제력/출세 정도 등에 대한 비난 4) 자린고비다/궁상을 떤다/통이 작다/베풀 줄 모른다 /남에게 빚지기를 좋아한다는 비난
상대방 능력 무시	1) 성공하지 못했다/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비난 2) 일을 그르쳤다/남에게 누가 된다는 비난 3) 지식이 부족하다는 비난 4) 제 앞가림을 못한다는 비난 5) 자립심이 없다는 비난 6) 어리다고 얕잡아 보는 표현 7) 노골적 명령이나 통제/굴욕이나 사과의 강요 8) 상대방 무시
자 화 자 찬	1) 스스로에 대한 칭찬 및 자랑 2) 자기 집단에 대한 칭찬 및 자랑 3) 같은 분야 선배에 대한 극존칭 4) 교만한 태도가 내비치는 언어의 사용 5) 프로그램 홍보를 위한 애교 섞인 자화자찬은 제외
관 객 무 시	1) 관객을 자기로부터 혜택을 받는 집단으로 묘사 2) 관객을 얕잡아보는 언어 3) 관객에게 하는 반말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4) 공정성

방송언어가 네 번째로 갖춰야할 기준은 공정성이다. 공정성이라는 용어 내지 기준은 주로 뉴스를 포함하는 보도 제작 프로그램이나 정치성 짙은 프로그램 영역에서 자주 거론된다. 임태섭은 공정성과 관련해 꼭 보도나 정치성 짙은 프로그램에 적용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한다. 즉 공정성의 가장 중요한 차원인 불편부당성은 어떠한 프로그램에 의해서도 위협받을 수 있으며 어떤 영역의 사람들도 피해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방송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언어는 차별의 언어 또는 편견의 언어라 부를 수 있다.

<표 3-7> 공정성과 관련한 세부항목

남녀차별	1) 여성의 성적 매력을 언급 2) 여자의 사회적 진출을 비난/여자의 보조적 역할을 강조 3) 여자의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를 부각(부동산 투기, 춤바람, 치맛바람) 4) 여자의 나약함/수동성/보호 필요성을 강조 5) 여자의 능력을 열등하게 묘사 6) '여자가...' 또는 '남자가...'라는 식으로 운신의 폭을 제한 7) 남녀의 행위 규범을 구분
세대차별	1) 특정 세대의 가치관 비난 2) 특정 세대에 불필요한 표현 3) 불필요한 세대 차이 강조 4) 신세대를 쾌락추구형 인간 또는 무책임한 인간으로 묘사 5) 노인들을 비이성적인 옹고집 또는 시대 감각이 없는 사람으로 묘사 6) 노인들을 구제의 대상으로 취급 7) 노인들을 필요 이상으로 소외당하는 사람들로 묘사
기타차별	1) 계층에 대한 편견 2) 지역에 대한 편견 3) 직업에 대한 편견 4)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 5) 특정 종교에 대한 편견 6) 특정 인종에 대한 편견 7) 특정 국가에 대한 편견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5) 세련성

방송언어는 그 사회에 있어 일반인들이 따라가면서 길들여지기 쉬운 가장 표본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매끄럽고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언어이어야 한다. 즉 양질이면서 매끄럽고 또한 세련미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세련된 언어라는 의미는 꼭 어려운 말이나 고급 언어로 치장된 것이 아니라 단어나 표현의 선택이 적절하면서도 논리적, 문법론 적, 의미론적으로 무리가 없는 언어를 구사해야 한다는 것이다.(윤영미, 2000, 42~43쪽)

<표 3-8> 세련성과 관련한 세부항목

부절적한 어휘	1) 능력 부족으로 인한 잘못된 어휘 선택 2) 잘 몰라서 전혀 말도 안 되는 어휘를 선택 3) 고의로 선택한 어휘는 제외 4) 어느 정도 적절성이 있는 어휘 선택은 제외
불명확한 표현	1) 문법적으로 틀리거나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말은 했으되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사용하는 경우 2) 존칭을 사용하지 않아도 될 상대방에 대해서 극존칭 사용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위와 같은 분석 기준에 따라 라디오방송 프로그램에서 방송언어의 오용은 어떤 유형으로 나타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방송언어 오용이 각 매체(KBS 제1라디오, KBS 제2라디오, KBS 제2 FM)별로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분석한 다음, 방송언어 오용이 진행자나 출연자, 방송 참여자 등 방송언어 사용자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도 분석해 올바른 방송언어의 사용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4. 신뢰도 측정

방송언어 심의 결과에 대한 내용분석에는 2명의 분석자가 참여하였다. 방송 언어 오용 유형에 대한 설명과 충분한 교육 후에 분석 유목에 따라 코딩을 실시하였다. 코딩한 결과에 대한 신뢰도 측정은 홀스티(Holsti)의 공식을 사용하였다.(김동규, 유재천, 2000, 212~216쪽)[7]

7) 신뢰도 계수(Coeffcient Reliability)를 측정하는 공식은 CS=2M/(N1+N2)이다. 여기서 M은 2명의 분석자간의 일치한 코딩수를 말하며 N1은 분석자 1이 코딩한 수를 의미하고, N2는 분석자 2가 코딩한 수를 의미한다.

<표 3-9> 신뢰도 측정 결과

분석단위	순 정 성	공 식 성	공 손 성	공 정 성	세 련 성
신 뢰 도	0.94	0.87	0.90	1.00	0.92

신뢰도를 측정한 결과 순정성에서는 총 163개중 155개가 일치해서 0.94의 신뢰도 계수 값이 나왔다. 그리고 공식성에서는 총 31개중 27개가 일치해서 0.87, 공손성에서는 총 22개 중 20개가 일치해서 0.90, 공정성에서는 1개 중 1개가 일치해서 1.00, 세련성에서는 26개 중 24개가 일치해서 0.92의 신뢰도 계수 값이 측정되었다. 이러한 측정값들은 상관관계계수와 같이 해석할 수 있는데 비교적 높은 수치의 신뢰도를 보이고 있어, 분석 유목의 신뢰도가 어느 정도 높다고 할 수 있다. 즉 분석자 상호간에 높은 일치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유목에 대한 내용분석 결과가 신뢰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차배근, 1990, 240~241쪽)[8)]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8) 상관관계의 정도를 해석하는 기준은 학자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0.70~0.90은 높은 정적 관계를 나타내며, 0.90~0.99는 극히 높은 정적 상관 관계를 나타낸다고 한다.
Guildford의 상관관계 해석기준 적용
① + 1.00 : 완전한 정적 상관관계
② - 1.00 : 완전한 부적 상관관계
③ 0.90-0.99 : 극히 높은 정적 상관관계
④ 0.70-0.90 : 높은 정적 상관관계
⑤ 0.40-0.70 : 중위(보통) 정적 상관관계
⑥ 0.20-0.40 : 낮은 정적 상관관계
⑦ 0.00 : 무상관관계

Ⅳ. 연구결과

본 연구는 라디오방송 프로그램에서 나타나는 방송언어의 오용실태를 세 가지 연구 문제를 통해 알아보았다. 구체적으로 라디오방송 프로그램에서 나타나는 방송언어의 오용유형을 알아보았고, 이러한 오용 언어들이 라디오방송 채널의 특성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해 보았다. 또한 방송언어 사용 주체별로는 방송언어 오용 정도가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도 함께 분석했다. 연구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KBS 방송언어 심의위원회의 방송언어에 대한 심의 결과 중 앞서 밝힌 분석대상 라디오방송 프로그램의 심의 내용을 분석자료로 이용하였다. 전체 분석자료는 2004년 11월부터 2005년 5월까지 모두 7차례에 걸친 월별 심의 사례 수를 합한 총 243건이다. 이 자료를 기초로 하여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1. 라디오방송 프로그램에 나타난 방송언어 오용유형 분석결과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KBS 방송언어 심의위원회의 “방송언어 심의 결과” 중 분석대상 라디오방송 프로그램에서 나타난 전체 243건의 방송언어의 오용 유형을 5가지 분석 기준에 따라 분류해 본 결과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표 4-1>와 같이 나타났다.

<표 4-1> 분석기준에 따른 전체 방송언어오용 사례 수

[단위: 건수, ( ): %]

구 분	순정성	공식성	공손성	공정성	세련성	계(%)
사례수(%)	163(67.1)	31(12.8)	22(9.0)	1(0.4)	26(10.7)	243(100)

먼저, 순정성 항목의 경우 ‘비속어, 사투리, 외래어, 잘못된 어법 등의 세부 항목으로 구성되는데 방송언어 오용사례 분석건수 243건 가운데 67.1%인 163건이 순정성의 오류로 나타나 가장 많은 오류가 발생하였다. 이는 방송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표준어의 사용과 방송위원회의 “방송심의 규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바른 말 사

용에 배치되는 것으로 우리 사회가 가장 중시하는 바르고 고운 말 사용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둘째, 선정적 언어, 비격식적인 언어, 극단적인 표현과 과장어의 항목으로 구성된 공식성은 전체의 12.8%인 31건으로 라디오 방송 중에 선정적이고, 사적 대화에서나 나옴직한 반말 그리고 지나치게 친근함을 나타내는 언어표현이 많이 표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방송은 출연자들 사이의 사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출연자들과 청취자들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방송언어는 품위와 격식을 지켜야 함은 물론 감정도 절제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공손성에 대한 오류는 전체의 9.0%인 22건이었다. 공손성은 서로의 체면을 손상시키지 않는 사려 깊은 언어행위이다. 공손성은 출연자간 공손성과 출연자와 청취자간 공손성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출연자간 공손성은 출연자들이 서로 체면을 지켜가면서 프로그램을 진행해 나갈 때 유지된다. 하지만 분석 대상 프로그램에서 나타난 공손성 오류는 청취자나 상대 출연자에 대한 배려가 없는 태도에서 나오는 것으로 외모에 대해 상대를 얕잡아 보거나 남을 무시하는 언어 사용 등 상대방의 품위를 손상하는 언어표현이 많았고 자기자랑을 지나치게 하는 표현도 더러 있었다.

네 번째 오용유형인 공정성의 경우는 차별의 의미를 내포하는 것인데 전체의 0.4%인 1건으로 남녀 혹은 세대별 차이를 느끼게 하는 언어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다섯 번째 오용유형인 세련성의 오류는 전체의 10.7%인 26건으로 나타났다. 세련된 언어는 고급스런 언어나 어려운 언어가 아니라 단어나 표현의 선택이 적절하면서도 논리적이고, 의미론적으로 무리가 없는 언어를 구사하는 것인데 말은 했으나 어떤 의미로 말을 했는지 모를 불명확한 표현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분석기준 하위항목에 따라 세부 유형별로 분석해본 결과 <표 4-2>와 같이 나타났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표 4-2> 분석기준에 따른 방송언어오용 세부유형별 사례 수

[단위: 건수, ( ): %]

항 목		소 계(%)	합 계(%)
순정성	비속어	146(89.6)	163(67.1)
	사투리	-	
	외래어	15(9.2)	
	잘못된 어법	2(1.2)	
	소 계	163(100)	
공식성	선정적 언어	5(16.1)	31(12.8)
	비격식적 언어	24(77.4)	
	과장어	2(6.5)	
	소 계	31(100)	
공손성	상대방 성격비난	2(9.1)	22(9.0)
	상대방 품위 손상	13(59.1)	
	상대방 능력 무시	-	
	자화자찬	5(22.7)	
	관객무시	2(9.1)	
	소 계	22(100)	
공정성	남녀차별	1(100)	1(0.4)
	세대차별	-	
	기타차별	-	
	소 계	1 (100)	
세련성	부적절한 어휘	6 (23.1)	26(10.7)
	불명확한 표현	20 (76.9)	
	소 계	26 (100)	
합 계			243(100)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순정성 오류 가운데 가장 많이 나타나는 방송언어의 오용은 비속어의 사용으로 163건 가운데 89.6%인 146건이었고, 외래어 사용이 9.2%인 15건, 잘못된 어법이 1.2%인 2건이었다. 따라서 라디오방송 프로그램에서 방송에 적합하지 않은 비속어, 은어 등의 사용이나 외래어의 남용이 얼마나 심한지를 알 수 있었다.

공식성 오류 가운데는 비격식적 언어의 사용이 가장 많았다. 공식성 오류 31건 가운데 77.4%인 24건이 비격식적인 언어 사용이었는데 방송에서 출연자들끼리 반말을 하거나 지나치게 친근한 호칭을 사용함으로써 방송을 지나치게 사적 대화의 장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높았다. 다음으로 선정적 언어 사용이 5건(16.1%), 과장어 사용이 2건(6.5%)이었다.

공손성 오류 가운데는 모두 22건 가운데 상대방 품위를 손상하는 언어표현이 59.1%인 13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자화자찬이 5건(22.7%), 상대방 성격비난 2건(9.1%), 관객무시가 2건(9.1%)으로 나타났다.

공정성에 대한 오류는 1건이었는데 남녀차별에 대한 언어표현이었는데 그나마 차별적 언어 사용은 라디오방송 프로그램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세련성 오류에서는 26건 가운데 20건이 불명확한 표현으로 76.9%를 차지하고, 6건 23.1%는 부적절한 어휘 선택이었다. 특히 의미 없이 존칭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어 경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이상의 방송언어 오용유형 사례 총 243건을 분석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분석해본 결과는 <표 4-3>과 같다.

<표 4-3> 전체 분석대상에 대한 방송언어 오용 실태분석

[단위: 건수, ( ): %]

항 목		소 계(%)	합 계(%)
순정성	비 속 어	146(60.1)	163(67.1)
	사 투 리	-	
	외 래 어	15(6.2)	
	잘못된 어법	2(0.8)	
공식성	선정적 언어	5(2.1)	31(12.8)
	비격식적 언어	24(9.9)	
	과 장 어	2(0.8)	
공손성	상대방 성격비난	2(0.8)	22(9.0)
	상대방 품위손상	13(5.3)	
	상대방 능력무시	-	
	자화자찬	5(2.1)	
	관객무시	2(0.8)	
공정성	남녀차별	1(0.4)	1(0.4)
	세대차별	-	
	기타차별	-	
세련성	부적절한 어휘	6(2.5)	26(10.7)
	불명확한 표현	20(8.2)	
합 계			243(100)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라디오방송 프로그램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방송언어의 오용 유형은 비속어의 사용이다. 전체 분석대상 사례 243건 중 60.1%인 146건이 방송언어로는 부적합한 비어나 속어, 은어 등의 사용이었다. 이는 라디오방송 프로그램에서 신변잡기식 언어표현이 아주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는 것인데 방송 진행자나 출연자, 방송참여자 등에 대한 올바른 방송언어 교육이 시급함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비격식적인 언어를 사용한 사례가 9.9%인 24건이었는데, 비격식적 언어 표현은 진행자와 출연자, 출연자와 출연자간에 반말을 하거나 지나치게 친근감을 나타내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

불명확한 언어표현은 8.2%인 20건이었는데, 존칭을 잘못 쓰거나 말의 의미가 불분명한 경우였다. 외래어의 사용은 6.2%인 15건, 상대방 품위손상은 5.3%인 13건, 부적절한 어휘 2.5%인 6건, 선정적인 언어 2.1%인 5건, 자화자찬 2.1%인 5건, 잘못된 어법 0.8%인 2건, 과장어 0.8%인 2건, 상대방 성격비난 0.8%인 2건, 관객무시 0.8%인, 남녀차별 0.4%인 1건(0.4%)으로 방송언어의 어휘 사용에 신중함이 요구되고 있다.

이상의 방송언어 오용유형 가운데 방송언어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한 오용사례 몇 가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 비속어

"빠꾸를 내가지고" "꼬셔봐" (11/7, 2R 행복충전)
"짱구를 잘 굴려야" (11/12, 2FM 가요광장)
"시침 뻑 까고 있어요"(12/8, 2R 안녕하세요)
"깍두기분들"(11/27, 2R 뮤직토크)
"기분 좋은 상상 때려보세요"(12/14, 2R 뮤직토크)
"지금은 개털 되시고(11/23, 2FM 가요광장)
"음악이 죽이죠"(11/6, 2FM 골든팝스)
"진짜야? 뻥이야?"(1/7, 2R 뮤직토크)
"한따까리 거하게 하셨는데..."(12/27, 2FM 가요광장)
"꼬장 부리면 정말 짱나죠"(→짜증난다)(12/7, 2FM 골든 팝스)
"주둥이에 대고 색소폰 부는 흉내내는 사람들이 있다"(2/1, 2R 행복충전)
"개판을 못칩니다. 군대용어로 좀 삐대고 하는데"(1/28, 2FM 가요광장)
"오빠도 눈치 깟지"(1/29 2FM 키스 더 라디오)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빠져 자던 분들은..."(3/10, 2FM 가요광장)

"정찬씨의 몸을 즐감할 수 있었다"(→즐겁게 감상하다)(3/13, 2FM 볼륨을 높여요)

◉ 비격식적인 언어

"오빠(출연자)는 내 이상형이 아니잖아"
"..하는 거야" "못한다구" 등의 반말(10/24, 2R 행복충전)
"너랑 나랑, 아니 ..씨랑 결혼하면 진짜 대박일거야" 등의 반말(12/5, 2R 행복충전)

◉ 불명확한 표현

"얼굴이 많이 삭으셨어요"-출연자에게 (1/5, 2FM 키스 더 라디오)
"2백명 넘게 문자가 오셨는데"(→문자를 보내주셨는데)(3/25, 2R 싱싱한 12시)
"...가 출소하셔서.. 한국으로 돌아오셨는데.. 60이 되셨으니까.. 검거가 되셨을 때.."(3/31, 2R 안녕하세요)

◉ 외래어 남용

"너무 영(young)하게 오셨다"(젊어 보인다)(10/28, 2FM 볼륨을 높여요)
"나는 손가락이 굵으니까 반지는 슬림(→가는 게) 맞아"(1/13, 2R 행복충전)
"배 캄푸라치도 되고..((→배도 가릴 수 있고..)(4/18, 2R 행복충전)

◉ 선정적인 언어

"화장실에 가면 야한 낙서해놓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WXY'라고 적어놓고.. W는 가슴, X는 배꼽, Y는 허벅지"(3/11, 2R 행복충전)
"가슴 큰 여자를 선택핸거네. 확 세리뿔라"(3/15, 2R 싱싱한 12시)

2. 라디오 채널 특성에 따른 차이 분석 결과

방송언어 심의 결과 중 방송언어의 오용 유형이 채널의 특성에 따라서는 어떤 차이를 나타나고 있는지 분석해 보았는데 분석 결과는 <표 4-4>와 같다.

<표 4-4> 라디오 방송 채널 특성에 따른 차이 분석

[단위: 건수, ( ): %]

항 목		제1R	제2R	제2FM	합계(%)
순정성	비 속 어	2(16.7)	85(57.8)	59(70.2)	146(60.1)
	사 투 리				
	외 래 어	1(8.3)	6(4.1)	8(9.5)	15(6.2)
	잘못된 어법		2(1.4)		2(0.8)
공식성	선정적 언어		2(1.4)	3(3.6)	5(2.1)
	비격식적 언어		21(14.2)	3(3.6)	23(9.9)
	과 장 어	1(8.3)	1(0.7)		2(0.8)
공손성	상대방 성격비난		2(1.4)		2(0.8)
	상대방 품위손상		6(4.1)	7(8.3)	13(5.3)
	상대방 능력무시				
	자화자찬		5(3.4)		5(2.1)
	관객무시		2(1.4)		2(0.8)
공정성	남녀차별		1(0.7)		1(0.4)
	세대차별				
	기타차별				
세련성	부적절환 어휘	3(25.0)	3(2.0)		6(2.5)
	불명확한 표현	5(41.7)	11(7.4)	4(4.8)	20(8.2)
합 계(%)		12(4.9)	147(60.5)	84(34.6)	243(100)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먼저 제 1 라디오는 우리나라 기간방송 채널로 24시간 방송한다. 정시 뉴스와 기획 보도, 시사정보, 토론프로그램, 기상정보 등 교양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방송 프로그램 진행은 방송 언어에 대해 교육을 받은 기자, 아나운서, 프로듀서나 시사전문가 등이 맡고 있다. 제 1 라디오의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 지적 건수는 분석대상 건수 243건 가운데 12건으로 5%에 불과하다. 따라서 프로그램 진행 과정에 잘못된 방송언어를 사용하는 사례가 상대적 많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올바른 방송언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의식을 갖추고 있거나 방송언어에 대한 교육을 정식으로 받은 사람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프로그램 구성이나 내용 면에서도 언어 사용

에 신중함을 요구하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제 2 라디오는 뉴스와 교통정보, 생활정보, 청취자 노래방, 드라마 등 오락 프로그램 중점적으로 편성하는 라디오 채널이다. 하루 21시간 방송하며 광고방송을 한다. 따라서 광고를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는 광고주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고 청취율을 높여야 하는 제약을 받게 된다. 이런 특성으로 인해 제 2 라디오에 편성되는 14개의 프로그램 중 대부분에 대중의 인기를 얻는 가수와 탤런트, 개그맨 등을 프로그램 진행자로 기용하고 있다. 프로그램 진행자나 출연자가 대중의 인기를 얻고 있는 연예인 위주로 이루어지면서 출연자들의 사담이나 잡담 등을 통한 자극적인 언어표현이 여과되지 않고 방송되고 있다. 채널별 분석 결과 분석대상 건수 243건 가운데 147건, 60.5%가 제 2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이러한 현상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리고 147건에 57.8%인 85건이 비속한 언어 사용이었다. 따라서 오락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연예인들의 신중한 방송언어 사용이 절대 요구된다.

제 2 FM은 청소년층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대중음악 전문채널이다. 진행자는 가수나 개그맨 등 연예인이 주로 담당하고 있다. 출연진 역시 연예인이 많다. 진행자와 출연자, 출연자와 출연자, 출연자와 청취자 사이 대담과 음악방송을 내보내는 특성을 갖고 있는 제 2 FM 방송 프로그램에서는 분석대상 243건 가운데 34.6%인 84건이 방송언어를 잘못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비교적 많은 방송언어 오용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제 2 FM역시 84건 가운데 70.2%인 59건이 비속어, 은어의 저속한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디오방송의 채널별 오용사례 분석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방송언어의 오용은 교양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채널보다 오락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방송채널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비록 광고주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고 청취율 상승에 대한 압박이 있더라도 진행자나 출연진의 선정과정에 신중함이 요구되고 올바른 방송언어에 대한 교육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3. 방송언어 사용자별 차이 분석 결과

라디오방송 프로그램에서 방송 언어의 오용은 사용주체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방송언어 심의 결과에 방송언어 오용사례를 언어사용 주체별로 분류해 분석했다. 그 결과는 <표 4-5>에 나타나있다.

<표 4-5> 방송언어 사용자별 오용차이 분석

[단위: 건수, ( ): %]

항 목		아나운서	기자리포트	전문MC	연예인	일반출연자	합 계(%)
순정성	비속어			10(100)	132(90.4)	4(66.6)	146(60.1)
	사투리						
	외래어				14(9.6)	1(16.7)	15(6.2)
	잘못된 어법	1(100)				1(16.7)	2(0.8)
	소 계	1(100)		10(100)	146(100)	6(100)	163(67.1)
공식성	선정적언어				5(16.7)		5(2.1)
	비격식적 언어				24(80.0)		24(9.9)
	과장어		1(100)		1(3.3)		2(0.8)
	소 계		1(100)		30(100)		31(12.8)
공손성	상대방 성격비난				2(9.1)		2(0.8)
	상대방 품위손상				13(59.1)		13(5.3)
	상대방 능력무시						
	자화자찬				5(22.7)		5(2.1)
	관객무시				2(9.1)		2(0.8)
	소 계				22(100)		22(9.0)
공정성	남녀차별				1		1(0.4)
	세대차별						
	기타차별						
	소 계				1(100)		1(0.4)
세련성	부적절한 어휘		3(100)		3(20.0)		6(2.5)
	불명확한 표현			1(100)	12(80.0)	7(100)	20(8.2)
	소 계		3(100)	1(100)	15(100)	7(100)	26(10.7)
합 계(%)		1(0.4)	4(1.7)	11(4.5)	214(88.1)	13(5.3)	243(100)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표 4-5>의 분석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라디오방송 프로그램에서 방송언어를 잘못 사용하는 주체는 대부분 연예인들이다. 이들이 잘못 사용한 방송언어는 전체 분석 대상 243건 가운데 88.1%인 214건이었다. 이 같은 방송언어의 오용은 연예인들이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진행자와 출연자, 출연자와 출연자, 진행자와 전화 방송 참여자, 출연자와 전화 방송 참여자가 나누는 대화과정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는 방송의 공공성이나 공익성에 대한 의식이 부족한 연예인들이 청취자를 의식하지 않은 채 방송을 사적 대화의 장으로 생각하고 잘못된 방송언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것이다. 반면에 전화를 통한 방송 참여자 등 일반 출연자들은 243건 가운데 5.3%인 13건의 방송언어오용이 있었고, 전문 MC는 4.5%인 11건, 기자나 리포터는 1.7%인 4건, 아나운서는 0.4%인 1건의 오용 사례가 있었다. 따라서 방송언어에 대해서 정식으로 교육을 받았거나 방송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방송언어에 대해 책임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잘못된 언어 표현을 거의 하지 않는데 반해 방송언어에 대한 소양을 갖추지 못한 연예인 등은 언어 표현에 신중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연예인들의 방송언어 오용 사례 214건 가운데 순정성에 대한 오류가 60.1%인 146건이었으며, 공식성 오류가 12.4%인 30건, 공손성 오류가 9.1%인 22건, 공정성 오류 0.4%인 1건, 세련성 오류 6.2%인 15건이었는데, 순정성 오류 146건 가운데서도 90.4%인 132건이 비속어 사용, 9.6%인 14건은 외래어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예인들의 방송언어 오용 사례 가운데 순정성에 대한 오류가 많은 것은 비속한 표현이나 은어, 무분별한 외래어 사용이 매우 많기 때문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는 방송 언어에 대해 기본적인 교육을 받지 않은 때문이기도 하지만 일상 생활에서 형성된 언어 습관을 방송에 출연하여서도 생각 없이 표출하기 때문이다. 또한 공식성과 공손성에서도 비교적 많은 오용사례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연예인들이 방송에 출연해서 진행자와 출연자, 출연자와 출연자 사이에 지나치게 친근함을 표현하거나 인기를 의식한 연예인 자신의 자화자찬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Ⅴ. 결론 및 제언

1.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는 우리나라 라디오방송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방송언어가 어떻게 잘 못 사용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방송언어를 올바로 사용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방안을 도출하기 의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KBS 방송언어 심의위원회의 “방송언어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라디오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 내용 가운데 중점 분석 대상 프로그램의 심의 결과(2004. 11~2005. 5)를 자료로 하여 라디오방송 프로그램에서 나타나는 방송언어의 오용 실태를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 사례는 총 243건이었으며, 이것을 순정성, 공식성, 공손성, 공정성, 세련성의 다섯 가지 분석 기준에 따라 분석하였다. 이 기준은 방송언어의 언어순화 측면과 국민 정서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분석 기준이라 채택하였다.

먼저 라디오방송 프로그램에서 방송오용 유형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방송언어 심의 결과”에 나타난 오용사례를 의미단락에 따라 분류 뒤 분석기준에 따라서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순정성은 163건(67.0%), 공식성은 31건(12.8%), 공정성은 1건(0.4%), 세련성은 26건(10.7%)로 순정성에 대한 방송 언어 오용이 가장 많았다. 분석과정에 2명의 교육을 받은 분석자가 참여하였다. 신뢰도 측정결과 순정성에서는 총 163개중 155개가 일치해서 0.94의 신뢰도 계수 값이 나왔고 공식성에서는 총 31개중 27개가 일치해서 0.87, 공손성에서는 총 22개 중 20개가 일치해서 0.90, 공정성에서는 1개 중 1개가 일치해서 1.00, 세련성에서는 26개 중 24개가 일치해서 0.92의 신뢰도 계수 값이 측정되었다. 이러한 측정값들은 비교적 높은 수치의 신뢰도를 보여 내용분석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리고 방송언어 오용유형 분석 결과를 토대로 라디오 방송언어의 오용이 라디오 채널의 특성에 따라서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방송 언어를 사용하는 주체별로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먼저 연구문제 1에 따라 KBS 방송언어 심의위원회“방송언어 심의 결과”에 나타난 방송 언어 오용 유형에서 먼저 ‘비속어, 사투리, 외래어, 잘못된 어법 등의 세부 항목으로 구성된 순정성에서는 총 분석건수 243건 가운데 67%인 16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처럼 방송 언어의 가장 기본적인 특성인 순정성에 대한 오류가 많은 것은 방송에 적합하지 않은 비속어나 은어, 유행어 등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비속어의 사용이나 외래어의 남용이 얼마나 심한지를 알 수 있었다.

둘째, 선정적 언어, 비격식적인 언어, 극단적인 표현과 과장어의 항목으로 구성된 공식성은 전체의 12.8%인 31건으로 라디오 방송에서 선정적이거나 비격식적인 언어도 비교적 많이 사용되고 있었다.

셋째, 공손성에 대한 오류는 전체의 9.1%인 22건이었는데 공손성 오류에서는 상대의 품위를 손상하는 언어 표현이 많아 신중한 방송어휘 선택이 요구되었다.

네 번째 오용유형인 공정성의 경우는 차별의 의미를 내포하는 것인데 전체의 0.4%인 1건으로 남녀 혹은 세대별 차이를 느끼게 하는 언어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다섯 번째 오용유형인 세련성의 경우는 전체의 10.7%인 26건으로 나타났는데 부적절한 어휘를 사용하거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순정성 면에서는 163건(67.0%), 공식성은 31건(12.8%), 공정성은 1건(0.4%), 세련성은 26건(10.7%)로 순정성에 대한 방송언어 오용이 가장 많았다.

연구문제 2는 방송언어의 오용이 라디오 채널의 특성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는 것이었다. 분석결과 제 1 라디오에서는 방송언어의 오용이 전체 243건 가운데 12건이 발생하여 5%에 불과한 반면에 제 2 라디오에서는 147건으로 61%, 제 2 FM에서는 84건으로 34%가 발생하여 오락 채널의 방송 언어 오용이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먼저 우리나라 기간방송 채널로 정시 뉴스와 기획 보도, 시사정보, 토론프로그램, 기상정보 등 교양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편성하고 있는 제 1 라디오는 분석대상 건수 243건 가운데 12건으로 방송언어 오용이 전체의 5%에 불과했다. 이는 올바른 방송언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의식을 갖추고 있거나 방송언어에 대한 교육을 정식으로 받은 사람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프로그램 구성이나 내용 면에서도 언어 사용에 신중함을 요구하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임을 알 수 있었다.

제 2 라디오는 뉴스와 교통정보, 생활정보, 청취자 노래방, 드라마 등 오락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편성하는 라디오 채널인데 광고방송을 한다. 분석대상 건수 243건 가운데 147건, 60.5%가 제 2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에서 나타나고 있었는데 상업적 성격이 짙은 채널에서 방송언어의 오용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제 2 FM은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대중음악 전문채널이며 광고방송을 한다. 제 2 FM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분석대상 243건 가운데 84건, 34%가 방송언어의 오용사례로 나타나 비교적 많은 방송언어 오용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제 2 FM 역시 청취율 상승과 맞물리는 상업방송 성격의 채널에서 방송언어에 대한 오용이 많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상의 라디오방송 채널별 오용사례 분석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방송언어의 오용은 교양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채널보다 오락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방송채널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비록 광고주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고 청취율 상승에 대한 압

박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업방송 성격의 채널이라도 방송언어의 올바른 사용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진행자와 출연진의 선정이나 기용과정에 올바른 방송언어에 대한 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 할 것이다.

연구문제 3은 방송언어의 오용이 방송언어를 사용하는 주체별로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는 것이었다. 분석 결과 연예인들의 방송언어 오용이 전체 오용건수 243건 가운데 214건 88.1%를 차지할 정도로 매우 많았고, 214건 가운데 순정성 오류가 68.2%인 146건으로 라디오방송에서 연예인들이 사적인 대화에서나 나옴직한 비속어나 외래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었다. 이는 라디오방송 진행자나 출연자의 선정과 섭외과정에 인기 연예인들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연예인들의 방송 출연이 잦아지는데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고, 인기 연예인의 기용이나 출연이 청취율을 높이는데 기여한다는 방송사의 라디오방송 프로그램 제작 관행이 방송언어 오용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연예인들에 의한 라디오 방송언어의 오염을 막기 위한 방안 마련이 절대 필요하다고 하겠다.

2. 올바른 라디오 방송언어 사용을 위한 방안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라디오방송 프로그램에서 방송언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어떤 요소보다 크고, 방송언어가 국민의 언어생활에 있어서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것을 감안할 때 방송언어 오용의 문제는 하루 빨리 개선되어야 한다. 실제로 사람들은 방송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표준 언어(standard language)라고 생각한다. 또 사람들은 방송에서 쓰는 말을 따라함직한 좋은 말(model language)이라고 생각한다. 방송인들은 지식도 풍부하고 오랫동안 말을 사용하는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남달리 뛰어난 언어구사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방송인이 쓰는 말은 정확하고 세련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방송언어의 책임이 그만큼 큰 것이다. 따라서 바르고 고운 방송언어 사용을 위한 방송사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라디오방송 프로그램에서 방송언어의 오용을 줄이고 문제를 개선하는데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1) 라디오방송 프로그램 제작관행의 개선

방송사의 라디오방송 프로그램 편성은 매년 두 차례 봄철과 가을철에 맞춰 새롭게 이루어진다. 프로그램에 대한 성격 규명과 전체 구성이 끝나면 프로그램 진행자를 선

정하게된다. 프로그램의 진행자를 선정하는 일은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 가장 어려운 작업이기도 하다. 청각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인 라디오 방송의 경우 청취자들로부터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되기 위해서는 인지도나 지명도가 높은, 그래서 청취자들이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진행자를 기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 비교적 쉽게 선정 대상에 오르는 사람이 대중의 인기를 얻고 있는 연예인이다. 소위 인기 연예인은 청취자들의 의식에 비교적 좋은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노력 없이도 청취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 흡인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작 관행은 오락 프로그램을 주로 편성하고 광고가 붙는 채널의 프로그램 제작에서 자주 나타난다. 그리고 이러한 제작 관행이 방송언어의 오용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는 본 연구의 연구결과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즉 오락성 프로그램을 많이 편성하는 제 2 라디오와 대중 음악 전용 채널인 제 2 FM 그리고 연예인 등의 방송언어 오용이 많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 원인은 연예인들은 방송언어에 대한 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데다 방송에서는 바르고 고운 말을 써야 한다는 의식 또한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연예인 위주의 진행자 선정 관행이 바뀌고, 프로그램 진행자 선정 기준의 제 1 조건으로 “바른 말을 사용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는 내부 규정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2) 방송언어 오용에 대한 엄격한 신상필벌의 적용

현재 올바른 방송언어에 관한 심의 규제 기관은 방송위원회의 방송언어특별위원회와 각 방송사 내의 심의 부서, 그리고 시청자 위원회가 있다. 이 가운데 강제성을 가지고 방송언어에 대해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구는 방송사의 심의 부서이다. 그러나 방송사의 심의 부서도 매일 매일 방송되는 각각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내용에 중점을 두고 심의할 뿐이며 특히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라디오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 더구나 방송언어에 대해 심의하고 나름대로의 조치, 즉 재발방지 촉구, 주의, 경고 등의 조치를 내리는 KBS 방송언어심의위원회의 기능도 프로그램제작 과정에 약간의 경각심을 갖게 할 뿐 강력한 신상필벌의 제도로는 작용하지 못하고 있다.

연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연구대상 라디오방송 프로그램에서는 저속한 언어표현이나 폭력적인 언어, 은어, 외래어의 남용이 난무하고 있는데, 이 같은 현상은 우리나라 전체 방송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도 볼 수 있다. 저속하고 폭력적인 언어, 은어 등이 방송을 통해 표출될 경우 이는 국민의 심성이나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의 언어습관 형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프로그램 진행자나 출연자들이 심하게 방송언어를 잘못 사용할 경우 강력한 신상필벌 기준을 적용해 라디오방송 프로그램

의 진행이나 출연에서 일정기간 퇴출시키는 제도가 방송사 내부에 만들어 져야할 것이다. 특히 연예인들의 경우 대중의 인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방송 출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곧바로 인기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신상필벌이 적용되면 그들 스스로가 방송언어 사용에 신중을 기할 것이다. 그래야만 프로그램 제작자나 진행자, 출연자 등 방송관계자 모두가 방송언어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인식하고 바른 방송언어 사용에 대한 의식을 갖추려 할 것이며, 방송언어 오용의 빈도가 줄어들면서 점차적으로 건전하고 바람직한 방송언어 사용이 정착될 것이고, 국민의 정서순화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방송언어 순화를 위한 교육

라디오 프로그램 제작의 관행 개선과 제도적 장치의 강화만으로 방송언어 오용을 줄이는데는 어려움이 뒤따른다. 여기에는 반드시 바른 방송언어 사용의 중요성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1) 라디오방송 프로그램 진행자와 연예인 출연자에 대한 교육

최근 들어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 진행자의 범위가 크게 확대되었다. 기자나 프로듀서, 아나운서 등 전문 방송인이 아닌 가수나 개그맨, 인기 탤런트 등이 프로그램 진행자나 출연자로 많이 나서고 있다. 이들은 방송언어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출연하기 때문에 방송언어 사용에 오류가 많이 발생한다. 앞서 연구 결과를 통해 보았듯이 전체 분석 대상 243건 가운데 88.1%인 214건이 연예인에 의한 오용이었다. 그리고 연예인이 프로그램 진행을 맡거나 연예인 출연이 많고 오락적 기능을 가진 제2라디오와 제2FM에서 방송언어의 오용이 많았다. 따라서 연예인에 대한 방송언어 교육이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

물론 바른 방송언어 사용을 지나치게 의식한 나머지 순화되고 어법에 맞는 표준어를 구사하면서 다소 경직된 방송을 하는 것보다 탁하고 거친, 비표준어를 사용하는 방송 진행이 신선해 보이고, 재미있고, 청취자들에게 소구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하지만 국어의 모범이 되어야 할 방송 언어가 저속한 유행어나 은어, 비표준어와 사투리, 부정확한 발음, 어법에 맞지 않는 말들로 가득 찰 때 우리의 방송 언어는 얼마가지 않아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될 것이다. 방송 언어 심의에서 순정성에 대한 오류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전문적인 언어 훈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대거 방송 프로그램 진행자로 투입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방송 언어 문제보다는 청취율이 먼저라는 방송사 제작진의 사고 방식에서도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오락성이 짙은 프로그램

에서 방송 언어가 오용되는 사례가 빈번한 것은 100% 원고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골격은 방송원고대로 하되, 나머지는 진행자의 재량에 맡기기 때문이다. 이처럼 청취율이라는 잣대만을 놓고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한 방송언어의 오용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이들은 올바른 방송언어 사용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우선 인기만 얻으면 된다는 식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서 공익 기능을 가진 방송언어를 크게 훼손시키고 있다. 이들에 대해서는 방송이 청취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라도 반드시 방송 언어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들이 방송에서 쓰는 말, 몸짓 하나 하나가 시·청취자, 그것도 특히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이들에 대해서 체계적인 언어 교육이 어려운 현실이라면 제작자는 방송 출연 전에 간단하게라도 언어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방송언어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서는 제작자, 일반 출연자에게도 철저한 교육과정이 있어야 한다.

⑵ 라디오방송 프로그램 제작자에 대한 교육

프로듀서가 방송언어와 관련해서 심의 대상에 오르는 것은 이들이 방송언어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프로그램의 진행자나 출연자를 선정하는 것은 프로듀서의 몫이고 진행자나 출연자가 언어 사용이 올바르지 못해 지적을 받았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을 프로듀서가 져야한다. 최근 들어서 프로듀서가 직접 현장에서 보도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시사 프로그램 또는 교양프로그램에서 진행을 맡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직접 언어를 선택하거나 사용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프로듀서들은 직접 언어를 선택하거나 사용하는 집단은 아니다. 따라서 어떤 말을 써야하고 어떤 말은 쓰지 말아야 하느냐는 것보다는 방송언어란 대체로 어떠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은 알고 있어야 한다. 바꾸어 말하면 프로듀서는 방송언어의 세세한 측면보다는 개괄적이고 포괄적인 가이드라인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프로듀서에게는 다음 6가지 방송언어의 포괄적 기준과 대표적인 나쁜 예와 좋은 예를 교육시키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① 방송은 바르고 고운 우리말을 써야 하고 외래어/외국어는 가능한 한 피해야 한다.
② 방송은 사적으로 쓰는 비어, 속어가 아닌 공식적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③ 방송언어는 출연자 상호간이나 시·청취자에게 무례한 표현은 써서는 안 된다.
④ 방송언어는 성, 지역, 인종, 직업, 정치성 등에서 특정 집단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언어를 써서는 안 된다.
⑤ 방송은 조악한 언어를 피하고 품위 있고 세련된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⑥ 방송은 일상에서 잘 쓰지 않는 지나치게 어려운 말을 피해야 한다.

(3) 비전문직 출연자에 대한 교육

90년대 이후 우리나라 방송은 다매체 다채널 시대를 맞으면서 방송인의 대량 생산을 부추기고 있고 방송에 출연하는 방송인의 범위도 갈수록 넓어지고 있다. 기상이나 교통, 물가 등 각종 정보를 전달하는 전문 분야의 방송원이나 통신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방송에 나와 방송언어의 혼란이 가속화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방송언어의 오용을 바로잡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교육방안이 필요하다.

첫째, 방송에서 고정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연예인들은 반드시 방송국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기초 언어 교육과정을 이수해야만 프로그램 진행자로 선정하도록 한다. 둘째, 전문지식이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한 일반 출연자의 경우는 방송언어 안내문을 만들어 방송 전에 반드시 읽어보도록 프로그램 제작 담당자가 권유한다. 방송언어 안내문에는 KBS아나운서실 한국어 연구회에서 제작한 방송 출연자를 위한 방송언어 내용을 포함시키면 효과적일 것이다.

【 방송출연자를 위한 KBS한국어 】

① 방송언어는 표준어라야 합니다.
② 방송언어는 가능하면 쉬워야 합니다.
③ 방송언어는 시·청취자 중심의 경어를 사용합니다.
④ 방송언어는 품위 있는 말을 써야 합니다.
⑤ 방송언어는 수식어를 지나치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⑥ 방송언어는 음운의 생략이 구어적입니다.(KBS아나운서실 한국어연구회, 1998, 2~10쪽)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4) 청취자의 감시기능 강화

라디오방송은 청취자를 대상으로 방송언어를 통해 정보를 전달한다. 이때 올바른 방송언어는 국민 언어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나타나지만, 잘못된 방송언어는 부정적인 영향으로 나타난다. 방송인이 인기를 의식해 잘못된 발음, 이상한 억양, 비속어, 유행어, 은어, 외래어, 우리말 어법에 맞지 않은 표현을 한다면 방송인이 국민의 언어 질서를 해치고, 우리말을 비하시키며 국민정서에 심대한 영향을 끼쳐 나쁜 가치관을 형성하게 된다. 이 같은 부정적인 영향으로 인한 피해자는 결국 시·청취자인 국민이 된다.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청취자가 방송언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그 방법으로는 지역별 모니터 회를 조직하여 보도, 교양, 오락 등 프

로그램 장르별로 시·청취한 후 유익한 프로그램과 유해한 프로그램을 구분하여 정리하고, 방송언어로 인하여 국민 언어생활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방송인이 있다면 구체적인 사례를 정리해서 시정을 촉구해야한다.

그 방법으로는 방송언어로 인한 역기능의 경중에 따라 방송출연정지, 강력한 시정촉구 등으로 구분하여 방송위원회, 방송사, 해당 방송인과 프로그램제작자에게 건의를 하고 그 내용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는 것이다. 만약 강력한 시정 및 제재를 촉구하여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는 시민 단체가 주축이 되어 국민 언어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방송인이 출연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시·청취 안 하기 운동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왜냐하면 방송의 소비자이면서 수용자인 시·청취자야말로 저질스럽고 경박한 프로그램을 몰아내고 유익하고 질 높은 프로그램을 만들게 하는 강력한 세력이기 때문이다.

3.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

본 논문은 라디오방송에서 나타나는 방송언어 오용 실태를 분석하여 국민 정서에 악영향을 미치는 방송언어 오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출발하였다. 이는 라디오방송의 기본이 “말”임을 감안할 때 라디오방송언어야말로 국민의 언어교사 역할을 해야 함은 물론 국민의 언어습관 형성이나 방송 외적인 면 즉, 국민의 올바른 정서 함양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하기 때문이다.

우선 라디오방송에서 잘못 사용되는 방송언어는 어떤 유형으로 나타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고, 라디오방송 채널의 특성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도 알아보았다. 그리고 실제 방송언어를 사용하는 주체별로 어떤 유형의 방송언어 오용이 많으며,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분석해보았다. 특히 KBS 방송언어심의위원회의 라디오방송언어 심의 결과를 중심으로 방송언어 순화적 차원의 방송언어 오용 사례만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정서 중 어떠한 정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도 살펴보려 하였다. 이를 위해 과거 국어 순화의 중점 착안 사항이었던 발음이나 외래어, 사투리, 비표준어 등에 대한 오류의 분석에서 벗어나 국민의 건전한 사고방식을 해치는 방송언어 오용사례까지 분석하기 위해 임태섭의 평가기준을 근간으로 분석에 들어갔다. 그러나 본 연구는 KBS 방송심의 위원회의 “방송언어 심의 결과”에만 국한시켰다는 자료의 한계성에서 벗어나지 못해 지엽적인 부분에만 초점이 맞춰진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또한 분석기준을 순정성, 공식성, 공손성, 공정성, 세련성을 근간으로 했지만 이에 따른 세부 항목들이 모든 언어행위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므로 또 다른 속성을 간과할 여지도 있고 국민정서와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는지에 대한 분석 역시 충분치 않았음도

부인할 수 없다.

그리고 제주지역 방송사 프로그램의 언어표현은 어떠한지 함께 살펴보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향후 다른 사람의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공중파 3사의 방송언어 오용 사례뿐만 아니라 케이블 방송이나 위성방송 등의 방송언어에 대해서도 폭넓게 비교 연구할 수 있길 바라며, 또한 잘못 사용되는 방송언어가 방송의 수용자인 청취자들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수용자인 국민의 언어습관 형성에 어떤 형태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도 함께 연구되길 바란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참 고 문 헌

강명구(1993). 텔레비젼 뉴스앵커. 『방송과 시청자』, 7월호, 35~49.

김대행(2001). 『급변하는 사회의 방송 언어문화 향상 방안 연구』. 서울: 방송위원회. 김대행(2002).『방송언어 사용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서울: 방송위원회.

김동규, 유재천 공역(2000). 『매스미디어 조사방법론』. 서울: 나남.

김상준(1990). 『방송언어의 특성』. 서울: KBS 아나운서실 한국어연구회.

김상준(1992). 『방송언어연구』. 서울: 홍원.

김상준(1998). 『98한국아나운서대회 세미나 발표』.

김상준(2003). 『한국스피치 커뮤니케이션학회 춘계학술대회자료』.

김옥경(1995). 『라디오 방송진행자의 역할과 자질에 관한 연구』, 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한철(2002). 『방송의 현실과 이론』. 서울: 범우사.

남기심(2003). 『한국어연구회 자문위원회의 자료집』, 68~70, 77~78.

성기철(2003). 『한국어연구회 자문위원회 자료집』, 15~16.

신상일(2002). 『방송언어문화 관련 의식조사』(방송언어 사용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서울: 방송위원회.

윤영미(2000). 『방송언어 오용 사례의 장르, 채널, 직업별 분석 연구』, 경희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금희(1998). 『텔레비전 프로그램 장르에 따른 진행자 선호도에 관한 연구』, 연세대 석사학위 논문.

이영현(1996). 『텔레비전 방송 진행자에 관한 연구』,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은경(1998). 방송 분야의 외래어사용. 『새국어 생활』, 제8권 2호, 41~51.

이주행(1995). 방송출연자의 언어사용 양상. 『국어교육』, 297~321.

임태섭(1992). 방송언어 정책을 위한 제언. 『방송연구』, 35호, 123.

임태섭(1993). 방송언어정책을 위한 제언 Ⅱ : 권위와 극단의 언어. 『방송연구』, 여름호, 152-179.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임태섭(1996). 방송언어의 평가기준 및 문제언어의 비교분석. 『방송연구』, 여름호, 157-167.

전영우(1986). 방송아나운서론. 『방송연구』, 가을호, 111~125.

차배근(1990). 『사회과학연구방법』. 서울: 세영사.

최윤락(1999). 『방송부적합언어표현의 사례연구』,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진근(1995). 『한국방송언어의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팽원순(1986). 앵커맨론. 『방송연구』, 가을호, 135~145.

한신평(1993). 한국방송의 진행자 현황과 과제. 『방송시대』, 통권5호.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bstract

Yoon, Hee-Kil

Cheju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Dept. of Journalism and Public Relations

This paper examines the language and terminology used in radio broadcasting. First, a framework for radio language and terminology was constructed. Next, a critical analysis of radio broadcasting language use was conducted. Finally, corrective measures for addressing improper radio broadcasting language were proposed.

Modern people are exposed to a constant stream of broadcast language from a variety of broadcast media such as radio and others. Whether people are aware of it or not, their speech habits are subtly influenced by the language they are bombarded with daily from the broadcast media. This is why broadcast language should serve as a language instructor to citizens. However, many game shows currently use lots of slang and jargon and programs filled with puns and risque dialogue are the order of the day, resulting in severe pollution of media language. Also, poor broadcast language can exert a negative influence on the language habits of children, who readily accept whatever they hear. A reform of broadcast language standards is desperately needed and the number of those demanding such changes is steadily increasing.

Amidst such a broadcast language environment, this paper examined the KBS report entitled, “esults of the Broadcast Language Review” systematically analyzed and classified the types of language misuse and finally proposed some solutions to meet these problems.

This research paper is divided into five chapters. Chapters 2, 3, and 4 comprise the main points of the paper. In Chapter 2, radio broadcasting language and related theory are organized and presented. The topics covered include reliance on auditory input for radio-only broadcasts, the characteristics and features of radio-only broadcasting, characteristics and requirements of broadcast language, and the influence that broadcasting language and culture exerts on society.

Chapter 3 more concretely lays out the kinds of language misuse observed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in the KBS Language Review Committee Report, "Results of the Broadcast Language Review" (the review was conducted from Nov. 2004 to May 2005). Some information from the KBS review of radio broadcast language is used in this paper, namely, the number of radio broadcast errors and classification of the error types. Analysis of these errors is conducted using Lim Tae-Sup's 5 analytical criteria of sincerity, formality, politeness, fairness, and sophistication in broadcasting. The results of the analysis revealed that the category of sincerity, the bedrock of broadcasting language, had the most errors. This runs counter to the Korean people's character and their expectation of non-vulgar language. Top among the errors in the category of sincerity were the use of slang, jargon, and vulgarities, which highlights the need to clean up broadcast speech. A further analysis of the programs on which such errors occur most often revealed that radio game shows and the ever-popular pop music programs misused language more often than other programming categories. Also, celebrity guests on these programs exhibited a high number of language usage errors.

Chapter 4 proposes some measures to address cases of language misuse identified in Chapter 3. First, it is proposed that the overwhelmingly prevalent practice of having radio program producers invite celebrities should be discarded. Second, a strict system of accountability that utilizes penalties should be enforced for those radio hosts or guests who misuse language while on the air. Third, there needs to be a broadcast language education program to help raise the level of language used on the radio. Non-specialists should be used in such education programs, for example celebrities, radio program hosts, and producers. Also, a variety of educational methods appropriate for today's listeners should be utilized. Fourth, in order to make sure correct language is used on the air, a listener-based monitoring system for broadcasting language should be introduced. If listeners hear inappropriate or vulgar language on the radio, language that insults listeners, or other offensive content, listeners or civic groups should have the power to keep offenders from going on the air or to request the firing of offenders by submitting requests online.

Because language is the foundation of our intellectual culture and the fundamental factor affecting creativity, we must ensure that the language that is broadcasted is positive, sound, and correct. We should make an effort to correct broadcasting language problems as they occur and realize the importance of such efforts.